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향하여

평양 출판사
주체111(2022)년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향하여

평 양 출 판 사
주체111(2022)년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름할수 없는 위대하고 거창한 력사적무게가 실린 지나온 10년간의 려정을 돌이켜보는 이 나라 천만인민의 가슴가슴을 꽉 채워주는 남다른 자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절세위인의 손길에 떠받들려 겹쌓이는 시련속에서도 자력으로 열어놓은 번영의 새시대와 더불어 바라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눈부신 현실로 꽃피워온 위대한 인민의 더없는 긍지감이다.

그 지향에 있어 비길데 없이 아름답고 그 열망에 있어 사무치도록 강렬한 강국의 인민의 꿈과 리상이다.

천하제일의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 인민의 집인 사회주의대가정이라는 가장 크고 운명적인 꿈을 이루어낸 우리 인민이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장엄한 진군길에 들어서면서 소중히 품어안은 꿈이 있었다.

지금도 생생히 떠오른다.

뜻깊은 주체101(2012)년 태양절의 경축광장에서 울려퍼진 절세위인의 그 말씀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당의 의도이다.

온 세계를 커다란 충격으로 흔들어놓은 그 위대한 선언에는 시련과 투쟁속에 살아온 우리 인민을 받들어 만복의 금방석에 보란듯이 앉히시려는 절세위인의 웅지가 력력히 어려있었다.

김일성조선이 동방의 강국으로 높이 솟아 세상이 우러러보고 로동당만세소리가 강산에 더 높이 울리는 영광의 시대, 세계의 모든 문명하고 부러운 생활이 우리 인민들모두의것이 되고 자본주의나라에서 백만장자들이 독점한것보다 더 멋있고 희한한것이 평범한 우리 인민의 례사로운 생활이 되는 만복의 세월.

이것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소원이였고 우리 인민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꿈으로 되였다.

인민의 행복이 넘쳐흐르는 사회주의문명국!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오르는 휘황한 래일을 세상이 보란듯이 앞당겨오기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받들어 천만인민이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이민위천의 한생으로 인민을 키우시고 조선을 빛내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사상과 업적을 귀감으로 삼고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할 것이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실현해나갈것입니다.》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시며 10년세월 위민헌신의 멀고 험한 길을 끝없이 이어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그이의 헌신적인 로고와 심혈은 그대로 이 땅우에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놓았고 이르는 곳마다에 황홀한 새 문명의 별천지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는 눈부신 변혁을 안아왔다.

창전거리,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송화거리,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이 하늘아래, 이 땅에서 태여나는 모든것은 반드시 인민의 것이여야 하며 그것은 최상최고의것으로 되여야 한다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리념이 응축된 인민의 리상거리가 해마다 일떠섰다.

승마바람, 스키바람으로 사계절 흥겨운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의 황홀경도 이채롭지만 릉라인민유원지, 문수물놀이장, 릉라곱등어관, 중앙동물원을 비롯한 일등급의 문화정서기지들마다에서 향유의 진미를 한껏 느끼며 웃음짓는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이야말로 자본주의가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사회주의문명의 산 화폭이 아닐수 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문명한 산간도시의 전형으로 훌륭히 꾸려진 삼지연시며

장천과 중평땅의 천지개벽, 쑥섬의 천도개벽,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의 희한한 전경은 조선식번영의 참뜻을 뚜렷이 새겨주고있다.

새세기 교육혁명,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기치높이 사람들모두가 인재강국의 당당한 주인공들로 성장해나가고있다.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옥류아동병원, 류경치과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 삼지연시인민병원과 같은 현대적인 병원들이 련이어 일떠서 인민들이 선진적인 의료봉사의 혜택을 받고있다.

건설의 대번영과 함께 인민생활향상의 포성이 장쾌하게 울려퍼지는 속에 자력자강의 귀중한 창조물들이 하늘, 땅, 바다를 채워가고있다.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새 력사가 창조되고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향기, 과일향기가 차넘치고 공장과 일터마다에선 《매봉산》구두며 《소나무》책가방, 《봄향기》화장품, 《금컵》식료품을 비롯한 명상품, 명제품들이 쏟아져나와 물질생활의 윤택을 더해주고있다.

물론 세계에는 우리의 창조물들보다 더 요란하고 화려한것도 있을수 있다. 그러나 우리 손으로 이루어낸 값비싼 창조의 열매들만큼 자랑스럽고 훌륭한것이 없기에 인민의 자부와 기쁨은 각별한것이다.

마침내 바라는 모든 꿈이 눈부신 현실로 실현되는 래일은 결코 멀지 않다는 신심으로 하여 미래를 보는 눈은 더 높아지고 인민의 꿈은 보다 크고 휘황한 세계로 달음치고 있다.

참으로 10년세월 미증유의 도전과 난관속에서도 희세의 걸출한 위인의 령도밑에 세상을 놀래우는 거대한 변혁과 비약으로 문명국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하나하나 꽃피워온 우리 인민이다.

이 극적인 사변은 인민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천만로고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인민이 꿈꾸는 그 모든것을 소원하는 이상으로 이루어주리라.

인민이여, 그대의 꿈이 별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고 그대의 리상이 꽃이라면 이 조선을 백화만발하고 사회주의만복이 넘쳐나는 인류문명의 최고봉에 올려세우리라.

바로 이런 열화같은 사랑과 굳센 의지를 품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0년세월을 하루같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위민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며 경이적인 사변들과 변혁만을 안아오시였다.

절세위인의 탁월하고 세련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빛나게 구현되여온 가슴벅찬 나날들을 통해 우리 인민들은

그이께서 안겨주시려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이 어떤것인가에 대해 페부로 절감하였다. 그이와 함께 약동하는 젊음으로 눈부신 비약과 번영을 창조하며 세월을 앞당겨 바라는 꿈과 리상을 현실로, 실체로 꽃피울수 있었다.

오늘 이 시각도 경애하는 원수님은 인민의 꿈을 생각하고계시며 천만인민모두는 지나온 10년을 그러했던것처럼 절세위인의 령도를 받들어 사회주의의 새로운 승리의 래일을 앞당기기 위한 진군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고있다.

세계는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절세위인의 숭고한 인민사랑, 애국의지에 떠받들려 온 세상이 부럽게 소리치며 일떠설 사회주의문명국의 황홀한 현실을, 그속에서 위대한 인민이 행복의 웃음소리 높이 울리며 대대손손 누려가게 될 사회주의만복을!

차 례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는 인민의 리상거리들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부흥, 전면적발전을 이룩해나가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장엄한 진군길에 21세기의 문명개화기, 건설의 대번영기가 찬연히 빛나고있다.

비약의 새시대에 사회주의문명건설을 다그쳐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건설에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지난 10년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건설을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는 만년대계의 애국위업,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제고하고 인민들에게 신심을 주며 그들을 사회주의문명에로 선도하는 중요한 정치적사업으로 내세우신 절세위인의 웅지와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건설혁명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올라 문명국의 체모에 어울리는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수도 평양과 온 나라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섰다.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 솟아오른 자랑스러운 건축물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대표하는 본보기들이며

우리 원수님께서 빛내여주시는 인민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기념비들이다.

여기서도 가장 주목되는것이 바로 인민들을 위해 련이어 일떠선 현대적인 거리들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10년세월 절세위인의 직접적인 발기와 령도밑에 옹근 하나의 도시와 맞먹는 현대적인 새 거리들이 해마다 특색있게 솟아났다.

2012년에는 새로운 평양속도의 창조와 함께 건축 및 거리형식의 모든 요소들을 완벽하게 갖춘 창전거리가 만수대지구에 단 1년만에 일떠섰다.

2013년에는 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1 000여세대의 살림집과 학교, 병원, 탁아소, 유치원, 상점 등의 공공건물들, 아동공원, 소공원들, 각종 편의봉사시설들을 구비한 은하과학자거리가 형성되였다.

2014년에는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의 요구대로 선편리성, 선미학성을 철저히 구현한 위성과학자주택지구가 일떠섰다.

2015년에는 현대미와 조형미가 결합된 미래과학자거리가 대동강호안을 따라 건설되였다.

2017년에는 대자연의 재난을 가시기 위한 투쟁을 동반하는 속에서도 규모와 공사량에 있어서 미래과학자거리의 두배가 훨씬 넘는 려명거리가 려명신화의 창조와 더불어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떠섰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펼친 웅대한 국가부흥의 설계도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의 문명발전을 선도하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고있는 속에 2022년 4월에는 온 세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송화거리와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가 훌륭히 일떠서 준공을 선포하였다.

남들 같으면 열백번도 주저앉았을 역경속에서 새시대의 문명이 응축된 본보기, 표준거리가 일떠섬으로써 인민대중제일주의 건축의 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되였고 행복의 보금자리의 주인공들로 된 인민의 기쁨이 나날이 커만 갔다.

눈부신 건설속도가 창조되는 속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인민의 새 거리들은 하나같이 새 문명의 본보기적창조물이라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해에 평양의 중심부에 자기의 웅장화려한 자태를 드러낸 창전거리는 규모와 건축 및 거리형성의 모든 요소들에 있어서 명실공히 조형화, 예술화, 공원화가 높은 경지에서 실현된 리상거리이다.

눈뿌리 아득히 솟아오른 각이한 형태의 고층, 초고층살림집들과 함께 인민극장을 비롯하여 각종 교육 및 보건, 상업편의봉사시설들이 구색에 맞게 배치되여있는 창전거리의 전경은 참으로 볼만하다.

외부를 밝은 색갈의 타일과 현대적인 유리건재를 리용하여 광창을 많이 내면서 산뜻하게 마감처리된 현대적인 아빠트들이

밤에는 특색있는 불장식으로 황홀한 자태를 뽐내는데 이것은 전에는 볼수 없었던 독특한 건축미여서 사람들의 각별한 호평을 불러일으켰다.

가정생활에 편리하게 살림방과 부엌, 세면장 등이 훌륭하게 꾸려진 살림집내부는 말할것도 없고 아빠트주변에 상점, 식당을 비롯하여 갖가지 상업봉사기지들은 물론 탁아소, 유치원, 학교, 종합진료소 그리고 극장과 영화관, 공원까지 배치되여있어 최대한의 편리를 보장받을수 있게 되여있다.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이렇듯 훌륭한 현대적인 거리에 행복의 보금자리를 펴게 된 집주인들은 하나같이 평범한 근로자들이였다.

만수대지구에 펼쳐진 천지개벽을 통해서 우리 인민은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해가는 새시대에 누리게 될 문명의 새로운 높이를 직감할수 있었다.

희한한 보금자리 창전거리에서 시작된 새 문명의 황홀경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와 더불어 날이 갈수록 보다 높은 경지에로 비약하였다.

다음해인 2013년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속에 일떠선 은하과학자거리도 현대적인 다층살림집들과 학교, 병원, 탁아소, 유치원을 비롯한 공공건물들, 각종 봉사시설들 그리고 10여개의 공원들이 조화롭게 들어앉아 거리형성에서부터 독특하다. 뿐만아니라 3칸, 4칸, 5칸짜리 살림집들에는

공동살림방을 비롯하여 부모방, 부부방 그리고 특색있는 구조의 부엌 등이 배치되여있고 갖가지 현대적인 가구들과 겨울철온도보장을 위한 난방설비들까지 그쯘히 갖추어져있는데 그야말로 안팎으로 모든것이 완벽한 리상거리이다.

그 이후에 솟아난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미래과학자거리는 보다 높은 문명의 경지에 이른 본보기적건축물들이다.

평양의 룡흥네거리에 특색있는 지붕을 이고 쌍기둥을 이루며 하늘높이 치솟아오른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2개호동의 46층짜리 초고층살림집이 마치 대동강에 떠있는 두척의 돛배를 방불케 하고 특색있는 건축미를 자랑하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은 주체성과 민족성, 독창성과 편리성, 조형예술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희한한 대걸작품들이다.

나라의 륭성번영을 위한 사업과 인재육성사업에 한생을 바쳐가고있는 대학 교원들과 연구사들을 위해 천만금을 아끼지 않고 마련해준 교육자살림집들은 구조와 가구비품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하다.

말그대로 맨몸으로 들어와 생활할수 있게 모든것이 완전무결하게 구비된것으로 하여 만사람의 경탄을 자아냈다.

날로 비약하는 주체적건축예술의 척도이며 사회주의문명이 응축된 인민의 리상거리로 자랑높은 려명거리는 또 어떠한가.

주체105(2016)년 3월 력사적인 70일전투를 진두지휘하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태양의 성지와 잇닿아 뻗어간 새 거리, 려명거리건설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력사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아 너를 빛내리라는 력사의 맹세를 다지신 뜻깊은 룡남산일대에 일떠서는 새 거리의 이름을 《려명거리》로 명명해주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사실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고조에 달했던 당시의 정세하에서 인민의 리상거리건설을 선포한다는것은 보통의 담력으로는 누구나 선뜻 내릴수 없는 용단이였다.

하지만 력사의 모진 시련과 광풍이 기승을 부릴수록 추호의 동요나 주저도 없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바라시던대로 이 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강국의 찬란한 려명을 안아오고야말리라는 철석의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려명거리건설을 선포하신것이다.

려명거리건설을 공화국이 강대해지고 조선인민이 잘사는것을 한사코 가로막아보려는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짓부시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꽃피우기 위한 거창한 강국건설대전의 일환으로 간주한 건설자들은 견인불발의 의지로 떨쳐일어나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비약하는 려명신화를

창조하였다.

려명거리건설을 통하여 주체조선의 무궁무진한 발전잠재력, 사회주의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워가는 자력자강의 위대한 힘, 강국의 꿈과 리상을 앞당겨 실현해나가려는 천만인민의 강용한 기상이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현대건축거리의 본보기, 표준으로,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일떠선 려명거리가 마침내 준공의 날을 맞이하였다.

2017년 뜻깊은 4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몸소 준공식장에 나오시여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아담한 다층건축군, 웅장화려한 초고층건축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조형화, 예술화, 록색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여 주체건축예술의 미래와 사회주의문명의 높이를 보여주는 려명거리가 완공됨으로써 금수산태양궁전과 룡남산지구가 천하제일강국의 래일을 상징할수 있게 훌륭히 전변되였으며 교육자, 과학자들과 인민들을 위한 만복의 별천지가 또 하나 펼쳐지게 되였다.

밝아오는 강국의 려명을 마중해가는 조선의 위용이 방불히 안겨오는 려명거리는 보면 볼수록 건축의 실용성과 조형화, 예술화측면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주체건축, 현대건축의 본보기, 표준이다.

모든 건축물들의 외벽색갈이 록색과 흰색으로 산뜻하게 단장된 려명거리를 거니느라면 마치도 이깔나무와 봇나무가

설레이는 백두의 수림속에 들어선듯한 느낌을 자아내고 수십만㎡의 드넓은 원림록화면적과 어우러져 그 상쾌함은 이루 형언할수 없다.

걸 볼 안이라고 모든 건축물들의 내부시공과 장식도 정말 잘되였다. 려명거리의 상징인 70층초고층살림집의 내부시공만 보더라도 마치 멎어있는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안전하고도 견고하게 설치된 초고속승강기를 타면 단 수십초만에 70층 꼭대기까지 오를수 있다. 매 집집마다에 달린 베란다는 너무도 넓어서 하나의 자그마한 정원을 방불케 하고 널직한 공동살림방, 부모방, 부부방, 서재를 비롯한 살림방들과 부엌등에는 선편리성, 선미학성의 원칙에 맞게 현대적인 가구들과 건구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려명거리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마다에 전면적으로 도입된 선진적인 에네르기절약기술을 비롯한 록색건축기술들은 자력자강의 힘, 과학기술의 힘으로 인민의 리상실현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공화국의 발전면모와 창조본때, 문명의 높이를 뚜렷이 부각시키고있다.

이뿐만아니라 초고층살림집들의 기단층과 40층이하의 건물옥상 그리고 외부벽면에 꽃관목과 잔디를 심어 록지를 조성해놓은 특색있는 건축양상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거리의 풍치를 더욱 돋구어준다.

이렇듯 자체의 힘과 기술로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조건에 맞

게 개발한 첨단건축기술들이 대대적으로, 집약적으로 도입된 려명거리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록색도시들과 대비해보아도 손색이 없는 조선식의 록색형건축거리이다.

모든 생활조건들이 훌륭하게 갖추어져있는 훌륭한 보금자리에 새살림을 편것은 다름아닌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을 비롯하여 평범한 사람들이였다.

수도의 명당자리에 일떠선 현대문명의 본보기살림집을 통채로 받아안은 새집의 주인공들은 이름할수 없는 감격과 고마움으로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학술교류차로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자주 다녀온 **김일성**종합대학의 한 교원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름있는 교수들도 이렇게 훌륭한 집을 무상으로 쓰고산다는것을 생각조차 할수 없다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이 떠받들리우고있는 신성한 존재들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속진정을 터놓았다.

《요즘은 날마다 꿈을 꾸는것만 같고 호텔에서 사는 기분입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육자라고 하여 저에게도 이렇게 멋들어진 살림집을 안겨준 고마운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주의문명을 자랑하는 초고층살림집에 보금자리를 펴고 보니 온 세계를 굽어보는듯한 심정입니다. 저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에 담

겨져있는 깊은 뜻을 심장깊이 쪼아박고 제가 살고있는 문명의 최고봉우에서 배심든든하게 온 세계를 굽어보면서 세계를 압도해나갈 훌륭한 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겠습니다.》

이곳에서 살다가 불과 1년만에 궁궐같은 살림집을 받아안게 된 한 주민도 자기의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이 땅에 생을 둔 평범한 인민이라는것으로 하여 이처럼 무상의 행운을 누리게 되였으니 오늘의 이 기쁨, 이 감격을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려명거리를 돌아본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도 커다란 감동을 금치 못해하며 자기들의 심정들을 토로하였다.

《백만장자들이나 권세가들만이 살수 있는 이런 호화로운 주택들에서 평범한 교원, 연구사들과 일반주민들이 살고있다니 이 제도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바로 권세우에 군림하는 사람, 사회주의백만장자들이다.》, 《세계도처에서 집을 잃고, 일터를 잃고, 처자를 잃은 아우성소리가 높아갈 때 조선에서 울려나오는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는 령도자의 인민사랑의 정치에 대한 고마움의 찬가이다.》…

려명거리에 메아리친 인민의 격정과 환희, 이것은 곧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격동의 **김정은**시대에 대한 찬가인 동시에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더욱 창창할 강국의 미래를 확신하는 심장의 뜨거운 고백이였다.

사회주의문명의 번화가 려명거리와 더불어 인민을 위해서는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시고 한계를 초월하는 헌신과 로고를 깡그리 다 바치시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눈앞의 현실로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천만인민의 감사의 정은 하늘에 닿았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을 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평양시에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이민위천의 리념과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이 응축된 5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일떠세울데 대한 웅대한 수도건설구상을 펼치시였다.

공화국의 국력과 사회주의문명을 과시하는 새로운 인민의 리상거리들을 일떠세우게 될 대규모살림집건설을 당과 정부에 있어서 최중대과업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지난해 3월 송신, 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은 수도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크게 벼르고 준비해온 숙원사업이며 철두철미 국가의 재부와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의 결과가 고스란히 근로자들자신의 복리로 되게 하는 숭고한 사업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그리시면서 더욱 아름다워지고 웅장해질 우리 수도의

래일을 위하여, 새 문명을 마음껏 창조하고 향유할 우리의 부모형제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당 제8차대회 결정의 빛나는 실행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당중앙의 숙원을 풀어드리는것을 최고의 영예, 신성한 의무로 간직한 건설자들은 수도건설력사에 또 하나의 리정표를 새기게 될 1만세대 살림집건설에서 새로운 평양속도, 건설신화를 또다시 창조하였다. 도전과 장애가 그 어느때보다 혹심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착공한지 1년도 못되는 기간에 한개 도시와 맞먹는 거대한 건축군을 세상에 보란듯이 일떠세웠다.

송신, 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은 현대적이며 특색있는 80층 초고층살림집을 비롯하여 다양한 초고층, 고층살림집들과 보건, 교육, 편의봉사시설들이 편리하게 배치되고 여러 휴식공원, 고가다리, 장식구조물들이 주민지구와 예술적조화를 이루며 특색있게 건설되였다.

절세위인의 현명한 령도와 헌신의 로고가 력력히 어려있고 조선로동당의 숙원이 빛나는 현실로 펼쳐진 인민의 리상거리.

착공의 발파소리가 높이 울리던 그날로부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한시도 잊으신적 없이 그려보시던 행복넘친 인민의 모습, 희한한 보금자리에 새살림을 펴는 수도시민들의 모습이 사회주의의 아름다운 영상으로 송화거리에 새겨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성대히 진행된 송화거리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새 거리, 새집의 주인이 된 근로자들을 따뜻이 축복해주시였으며 하루빨리 새집들이를 하도록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건설장의 총계획도앞에서 그려보던 새집, 나날이 키를 돋구며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는 건축물들을 바라보면서 완공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근로자들이였다.

새 거리의 그 어디에서나 새집을 받아안은 꿈같은 행복에 울고웃으며 펼쳐놓은 춤판으로 흥성이고 어머니당에 대한 고마움의 목소리가 끝없이 울리였다.

《나 같은 평범한 로동자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집을 받아안을줄은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우리 원수님의 사랑의 자욱이 뜨겁게 어려있는 집에 들어서고보니 하루를 열흘, 백날맞잡이로 일하여 하늘같은 그 은혜에 보답할 생각뿐입니다.

오늘의 이 행복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온 가족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큰절을 올리고싶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뜻깊은 집에 입사한 문수물놀이장의 평범한 로동자가 솟구치는 격정에 눈굽을 적시며 터친 이 진정의 토로에 이 나라 인민의 감사의 정이 그대로 다 담겨져있다.

《우리 가정에 이렇듯 훌륭한 집이 차례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복이면 이보다 더 큰 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앞으로 맡은 일을 더 잘하여 우리 원수님의 령도를 일편단심 충직하게 받들 오직 한마음뿐입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로동자부부의 기쁨에 넘친 이 말을 통해서도 송화거리야말로 어머니당에 대한 고마움과 보답의 일념이 공기처럼 흐르는 사랑의 거리, 인민의 리상거리임을 잘 알수 있다.

송화거리준공의 환희와 기쁨에 이어 이번에는 평양의 풍치수려한 보통강기슭에 특색있는 다락식주택구가 일떠서 준공의 시각을 맞이하였다.

평양에 또 하나의 천지개벽을 펼치며 완공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는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최상의 물질문화적복리를 안겨주는것을 숙원사업으로 내세우는 당중앙의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과 주체건축의 발전전략이 응축된 새시대의 자랑찬 창조물이다.

인민의 웃음과 행복을 국력평가의 기준으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의 건축발전에서 새로운 도약대로 되는 호화주택구를 마련하여 나라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들에게 안겨주시기 위하여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건설을 발기하시고 몸소 설계가, 건설주, 시공주가 되시여 건설 전 과정을 직접 조직지휘하시였다.

새로운 형식의 특색있는 주택구는 주민들의 생활에 최대의

편의를 보장해줄수 있게 훌륭히 건설되였으며 호화로운 살림집들이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게 형성되고 이 일대의 원림록화가 개선됨으로써 도시의 문명수준과 보통강반의 풍경이 천지개벽되였다.

수도중심부의 유서깊은 명당자리에 조형화와 예술화, 실용성과 편리성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된 다락식주택구가 일떠섬으로써 살림집건설의 새로운 본보기, 사회주의 새 문명을 향유하는 인민의 행복의 별천지가 마련되였다.

조국의 부강번영에 공헌한 애국자들을 남먼저 금방석에 앉히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사랑속에 호화주택구에 보금자리를 편 로력혁신자, 공로자, 과학자, 교육자, 문필가들과 그 가족들은 행복의 최절정에 올라선 더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설레이였다.

모든 생활조건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진 궁궐같은 살림집에 들어서서 경탄을 금치 못해하며 그들모두는 인민의 행복을 위한 건설을 문명한 미래를 창조해나가는 백년지계의 애국사업으로 내세운 당중앙의 숭고한 뜻과 은덕이 얼마나 뜨겁고 크나큰것인가를 온넋으로 절감하였다.

그들은 조선로동당과 국가특유의 주체적이며 인민적인 성격과 우리 식의 고유한 멋과 특색, 현대건축발전추세를 훌륭히 반영한 주택구에서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더욱 휘황하게 변모될 조국의 래일에 대한 확신을 굳게 가다듬었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상징하는 평양의 새 경관인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는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과 자력의 억센 힘으로 전진비약하는 사회주의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과시하며 우리식 문명의 창조물로 만방에 빛을 뿌리고있다.

이번에 송화거리와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의 살림집들이 현대적이고 호화스럽게 건설된데 대한 세인들의 경탄은 참으로 대단하였다.

남조선에서 부러움을 금치 못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평양시내의 보통강변에 조성된 다락식주택구는 위치도 명당자리이지만 경관은 물론 실내장식과 구조 등에서도 최근 북이 새로 건설한 주택들보다 상당히 많은 품을 들인것이 알린다.》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는 마치 부유한 <호화촌>과 같은 느낌을 준다. 북이 이처럼 수도의 주요위치에 고급주택구를 조성하고 태양절을 맞으며 준공식까지 진행하여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준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제 집 마련은 꿈에 불과하고 청년들은 집을 구하려고 령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하는데 북은 공짜로 집을 준다.》

《북사람들은 정말 좋겠다. 저런 고급아빠트에서 다 살고. 북은 미국이 아무리 제재해도 웃으면서 새 아빠트도 짓고 정말 잘사네.》

《저런 나라가 존재한다는것이 신기하다. 이참에 다 북에 가자.》

인터네트에 대대적으로 오르고있는 이러한 글들만 보아도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실현해나가고있는 공화국인민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세인들의 진심을 잘 읽을수 있다.

오늘 인민들에게 더 좋은 살림집을 마련해주기 위한 대건설전투는 보다 활발히 전개되고있다.

지난 2월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80돐을 계기로 평양에서 새로운 1만세대 살림집건설의 포성이 또다시 울리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구상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이 시작되게 되였다.

련속적으로 과감하게 전개되는 살림집건설은 이 땅우에 인민의 존엄과 행복이 전면적으로 꽃피는 부흥강국의 새세상을 당겨오기 위함에 모든것을 복종지향시켜나가는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과 완강한 실천력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몸소 착공식에 참석하시여 《화성지구의 천지개벽으로 수도건설의 대번영기를 더욱 빛내이자》라는 뜻깊은 연설을 하시면서 모두다 우리식 사회주의 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향하여, 우리의 평양을 위하여, 천지개벽된 화성지구의 새집들에 우리 부모형제, 자식들이 들어설

기쁨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 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애민헌신의 세계를 다시금 새겨안으며 천만인민은 그이의 구상을 받들어 문명강국의 터전을 굳건히 다져나가는 보람찬 건설투쟁에서 세계를 앞서나갈 야심만만한 배짱으로 더 높은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지금 화성거리전역은 사회주의문명의 새로운 리상거리를 하루빨리 일떠세우려는 건설자들의 드높은 열의로 하여 련일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고있다.

세계는 지금 적대세력의 가증되는 압살공세속에서도 끄떡없이 한두해도 아니고 년년이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쳐가며 인민의 꿈과 리상을 하나하나 꽃피워가는 주체조선의 눈부신 위력에 경탄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문명에로 인민을 이끌어가시는 위대한 행복의 창조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이 땅우에는 인민의 리상거리, 행복의 보금자리들이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일떠서게 될것이다.

우리 인민들모두가 세상이 부러워하는 문명의 상상봉에서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향유해갈 내 조국의 미래는 더 밝고 창창할것이다.

삼지연땅에 펼쳐진 문명의 황홀경

지난 10년간 건설의 대번영기와 더불어 나라의 방방곡곡에 펼쳐진 사회주의선경의 희한한 황홀경들중에는 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로 솟아난 삼지연땅의 천지개벽도 있다.

우리 인민이 마음의 태를 묻은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삼지연시.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전체 조선인민의 고향 삼지연땅에 인민의 리상향, 사회주의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가 눈부시게 일떠서 온 나라를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형언할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시며 백두대지우에 력사의 기적을 안아오신 절세위인의 불멸의 업적을 온 세상에 전하며 2019년에 삼지연시 소재지가 준공되였다.

삼지연시의 천지개벽은 당중앙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적힘이 안아온 거대한 승리인 동시에 사회주의문명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축도이다.

광활한 백두대지가 정히 내여드린 명당자리에 우리식 문명의 높이가 응축된 리상향으로 일신된 삼지연은 평양사람들도 부러워할만큼, 세계의 손꼽히는 어느 산간명소나 유명한 관

광지도 무색해질만큼 몰라보게 변모되였다.

삼지연시의 베개봉전망대에 오르면 산간도시의 전형, 리상적인 표준으로 훌륭히 일떠선 유서깊은 성지가 한눈에 바라보인다.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중심으로 명백하게 구분되여있는 교양구획, 시급기관구획, 살림집구획, 지방공업구획, 교육보건구획, 관광구획들, 유서깊은 성지에 새로 뿌리내린 봇나무며 분비나무를 비롯한 갖가지 나무들, 시원하게 쭉쭉 뻗어나간 번듯한 포장도로들…

삼지연시의 건물들은 소층과 다층의 결합형인 기단층으로 련결되고 소층과 다층이 조화롭게 련결되였을뿐 아니라 건물들의 립면도 모두 예술화되여있다. 삼지연시 소재지지구에 형성된 소층과 다층의 결합형도시형성은 건설부문에서 하나의 비약이라고 당당히 말한다.

산간특색의 새 건축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며 너무도 몰라보게 변모된것으로 하여 이 고장에 사는 사람들조차 어디에 무엇이 있었던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 한동안은 건설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집을 찾아가야 했다고 하니 삼지연이 어느 정도 천지개벽하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

2021년에는 삼지연시 3단계공사가 성과적으로 추진되여 백두산밀영동, 리명수동, 신무성동, 5호물동동, 포태동과 중흥리, 흥계수리, 소백산리, 백삼리, 보서리, 통신리를 비롯한

삼지연시의 10여개 동, 리들도 천지개벽되였다.

백두산밀영동지구, 리명수동지구, 포태동지구의 주택들과 교육시설, 문화후생시설들, 답사숙영소와 중흥농장지구를 비롯하여 모든 건설대상들이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의 요구에 맞게 자연환경과 지역의 고유한 특색이 잘 살아나고 실용성, 다양성과 조형화, 예술화가 철저히 구현되게 훌륭히 건설되였다.

4년간에 걸친 삼지연시건설을 통하여 령도자와 인민의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위력이 힘있게 증시되였다.

돌이켜보면 삼지연시의 천지개벽은 유서깊은 삼지연시를 태양의 성지, 혁명의 성지답게 훌륭히 꾸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가 줄기차게 흐르도록 하기 위해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고결한 충정과 정력적인 령도의 결과이다.

삼지연.

조종의 산 백두산이 솟아있고 백두광명성이 솟아오른 혁명의 고향집이 자리잡고있는 이 유서깊은 성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사무친 정을 불러일으키며 가슴에 안아보시는 나라의 첫 지명, 조국의 대명사였다.

민족의 대통운이 열리고 백두의 혈통이 굳건히 이어진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땅에 휘황찬란한 미래를 꽃피워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질 때 이 땅우

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가 더욱 줄기차게 흐르고 우리 조국은 영원한 태양의 나라로 끝없이 빛을 뿌리게 되는것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삼지연시를 이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사회주의리상촌으로 일떠세워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집뜨락을 로동당시대의 문명을 대표하는 인민의 리상향으로 전변시키고 그것을 불씨로 하여 모든 시, 군들을 일신시키기 위한 투쟁이 온 나라에 료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게 하실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였다.

철석의 의지를 안으시고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부터 삼지연시꾸리기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경애하는 원수님.

얼마나 감동깊은 사연들이 삼지연시건설의 매 페지, 자욱자욱에 숭엄히 아로새겨져있는지 사람들은 다는 모른다.

삼지연은 우리 혁명의 시원이 열린 혁명의 성산 백두산아래 첫 동네이므로 여기에서부터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나오게 하시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궂은날, 마른날 가리지 않으시고 찾고찾으시였다.

몸소 설계가가 되시고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여 찾아오실 때마다 새로운 높은 단계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이르시는 곳마다에서 건설물들의 부족점들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손길에 대해 어떻게 한두마디 말로 다 이야기하겠는가.

삼지연시꾸리기공사가 한창이던 어느해 겨울 또다시 삼지연땅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삼지연시를 세계가 보란듯이 훌륭히 꾸리는 사업은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 인민의 마땅한 도리이고 혁명적의무이라는데 대해 가르쳐주시면서 삼지연시꾸리기는 그 목적과 의의가 더없이 숭고할뿐만 아니라 규모가 대단히 방대하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하고있는 거창한 투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 인민이 마음의 태를 묻은 전체 조선인민의 고향인 삼지연땅을 이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으며 남들이 흉내조차 낼수 없는 특색있고 우리 나라에서 제일 잘사는 고장으로 꾸리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은 확고한것이였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잡도리부터 단단히 해야 한다고 하시며 건물지붕이나 교체하고 벽체를 긁어내여 외장재나 칠하는 땜때기식이 아니라 이왕 품을 들일바치고는 개건보수라는 관점을 싹 털어버리고 새세기의 요구에 맞게 완전히 새로 건설하겠다는 각오를 안고 달라붙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삼지연시를 로동당시대의 문명이 응축된 현대적이며 살기 좋은 산간도시의 전형으로 전변시키자면 설계형성안에서부터 당의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의 요구에 맞게 산골군의 특색

이 살아나면서도 대상의 용도에 맞으며 류사성과 반복을 없애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진행하신 삼지연시에 대한 현지지도는 삼지연땅을 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로 전변시키는 보람찬 창조투쟁에로 건설자들과 우리 인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계기로 되였다.

어느해 7월 또다시 삼지연시건설현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삼지연시조감도를 보시면서 건물들의 외장재와 철판지붕재의 색갈을 건물의 용도와 특성에 맞게 조화롭게 하며 외부마감을 백두의 천연수림과 잘 어울리게 점잖은 색으로 할데 대한 문제, 삼지연시건설을 철저히 교양구획, 살림집구획, 현대거리구획, 산업구획, 체육문화교육구획, 상업봉사구획, 관광구획으로 가르고 비준된 총계획안에 준하여 진행할데 대한 문제 그리고 원림록화설계를 잘하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류달리 사랑하신 봇나무를 많이 심을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건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삼지연시건설을 통하여 현대문명이 응축된 산간도시의 전형을 창조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여 우리 나라 산간지대의 모든 군들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잘 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과정이 지방건설에서의 일대 도약기로, 하나의 혁명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다시

금 강조하시였다.

또 언제인가 삼지연시건설장을 찾아오시여서는 완공된 살림집에 들리시여 살림방과 부엌, 세면장을 비롯한 살림집의 구석구석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을 손색없이 잘하였다고 평가도 해주시고 삼지연시인민병원과 삼지연시과학기술도서관, 추가되는 호텔들을 훌륭하게 잘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그를 위한 조치를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삼지연시꾸리기 2단계공사가 전반적으로 마무리되여가던 때 또다시 삼지연땅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볼수록 장관인 삼지연시의 천지개벽을 두고 못내 감개무량해하시였다.

그날 당에서 구상하던대로 우리 민족제일주의건축리념과 주체적건축미학사상, 사회주의문명이 응축된 지방산간도시의 전형이 창조되였다고 하시면서 이곳 장군님 고향군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그들이 좋아한다면 더 바랄것이 없겠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말씀은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참으로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에 황홀한 광채를 내뿜으며 희한하게 솟아난 삼지연시의 살림집 하나, 건축물 하나에도 경애하는 그이의 천재적인 예지와 만능의 창조력, 무한대한 열정과 비범한 령도의 손길이 어리여있다.

삼지연시의 희한한 전변.

그것은 령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고결한 충성심의 산물이다.

령도자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를 결사의 관철로 무조건 실천하는것을 삶과 투쟁의 기본으로 여기고있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삼지연시꾸리기는 단순한 건설사업이 아니였다.

공화국을 기어이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극도에 달하고 형언할수 없는 시련과 난관이 걸음걸음 앞길을 가로막아나서는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 령도자의 구상을 실천하느냐 마느냐 하는 심각한 정치투쟁이였다.

그 어떤 격난도 백두의 기상으로 억세인 우리 인민의 신념과 투지를 흔들수 없었다.

엄혹한 추위와 불리한 공사조건을 이겨내며 순간도 멈춤없이 건설전투를 벌려온 건설자들의 영웅적인 투쟁과 온 나라에 고조된 삼지연시건설지원열기는 령도자의 구상을 실천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투철한가를 웅변적으로 말해주었다.

령하 수십℃를 오르내리는 북방의 강추위속에서, 모래와 돌마저 귀하고 때로는 물까지 없어 눈을 녹여가며 혼합물을 이겨야 했던 가혹한 환경속에서 충성의 돌격전, 치렬한 철야전, 과감한 전격전을 벌려 단 몇해사이에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할 천지개벽을 안아온 돌격대원들의 투쟁, 공장과 일터마다에서 증산의 동음으로 삼지연시건설공사를 힘있게 추동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세상사람들에게 백두의 후손들의 사상정신상태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삼지연시건설은 지방의 얼굴이 달라지고 농촌의 어제와 오늘이 뚜렷이 대비되는것으로부터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의 일대 도약기를 마련하며 강대한 국가건설의 활로를 열어제끼기 위한 거창한 창조투쟁의 첫걸음이라고 할수 있다. 삼지연시건설이 가지는 또 하나의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삼지연시에 건설된 살림집들과 공공 및 생산건물, 교육시설을 비롯한 모든 건축물들에는 사회주의문명이 응축되여있고 부럼없는 새 생활을 창조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포부가 담겨져있다.

백두대지의 명당자리에 우리 식의 문명을 자랑하며 전변된 삼지연땅에서는 준공식을 하기 전부터 새집들이경사로 련일 흥성이였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문명의 상상봉에 행복의 보금자리를 편 기쁨으로 삼지연시인민들의 격정은 하늘에 닿았다.

입사증을 받고 새집에 들어선 주인들은 너무도 꿈만 같아 어쩔줄을 몰랐다.

전기난방이 된 살림방이며 편리하게 꾸려진 부엌 그리고 물가열기까지 갖춘 세면장에 이르기까지 도시살림집 못지 않게 모든것이 훌륭하게 꾸려졌기때문이였다.

《전후에 삼지연은 어설픈 귀틀집들이 있는 궁벽한 산촌

이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그 흔적을 밀어버리고 난생처음 보는 아빠트들이 생겨났습니다. 2000년대에는 삼지연이 다시 한번 달라졌는데 그때 우리는 너무 희한해서 꿈을 꾸지 않는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삼지연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별천지로 천지개벽을 하였습니다. 우리 삼지연사람들이야말로 대대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이 어찌 삼지연시에 태를 묻고 살아온다는 한 로인의 심정만이랴 하겠는가.

세상에는 오랜 력사를 자랑하거나 특유의 멋으로 소문이 난 산간도시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조선의 삼지연시와 같이 절세위인의 웅지가 깃들고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다 비껴있는 리상촌은 세상에 없다고 본다.

남조선을 비롯한 세계의 언론들도 삼지연시의 전변에 대해 대대적으로 소개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산간도시의 본보기로 전변된 북의 삼지연시》, 《북, 지방이 변하는 새시대 도래… 말이 아닌 실제로》 등의 기사를 통해 경애하는 원수님의 각별한 관심과 직접적인 지도밑에 삼지연시가 《세계적인 번화가》, 《호화촌》으로 전변되였다고 평하였다.

남조선의 한 건설전문가는 자기의 도서 《북의 도시를

미리 가봅니다》에서 완공된 삼지연시에 대해 북이 3년동안에 이런 엄청난 건설을 완공하였다는 사실은 놀랍기 그지없다, 각진 빨간 지붕들이 스위스의 수도 베른같다, 규모도 설계도 상상을 초월한다, 시내중심의 삼지연호텔은 서울의 신라호텔보다 규모가 더 크다, 한번 가보고싶다는 소감을 피력하였으며 어느한 언론에 실린 글에서는 《최근 북이 공개한 삼지연시의 모습을 보면 쭉 뻗은 대도로와 잘 구획된 신도시의 모습이 엿보인다. 노을이 피여난 하늘을 배경으로 바늘잎나무와 부드러운 색조를 이루고 빼곡이 늘어서있는 소층, 다층주택들과 깔끔하게 정리된 거리가 매우 인상적으로서 웬만한 유럽도시보다 더 훌륭해보인다.》고 전하였다.

영국의 BBC방송을 비롯한 외신들도 삼지연시에 대해 깔끔하고 훌륭한 외관이다, 북의 어느 도시와도 전혀 다른 느낌을 준다, 아주 독특하고 화려하다고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로 삼지연이 천지개벽된데 이어 검덕지구가 국가적인 본보기산간도시, 광산도시로 훌륭히 전변되고있다.

몇해전 위험천만한 협곡철길을 달려 함경남도 검덕지구피해복구현장을 몸소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흥과 검덕, 룡양의 세기적인 락후를 싹 털어버리고 새세기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건설하여 우리 나라 굴지의 대규모광물생산기지인 검덕지구를 삼지연시 다음가는 국가적인

본보기산간도시, 광산도시로 훌륭히 전변시킬 원대한 구상과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직접 책임지고 떠맡아 인민군대와 함께 검덕지구의 광산마을들을 세상에 없는 광산도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사상초유의 산악협곡도시로 꾸리겠다고 하시면서 검덕지구건설방향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당정책결사관철의 기수이며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새로운 문명의 개척자들인 인민군군인들은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에 결사의 실천으로 보답할 일념안고 충성의 돌격전, 치렬한 철야전을 벌려 1년도 안되는 기간에 수천세대의 살림집을 일떠세우는 자랑찬 위훈을 창조하였다.

검덕지구를 세상에 없는 광산도시, 사상초유의 산악협곡도시로 꾸리려는 당중앙의 원대한 구상에 떠받들려 금골1동, 금골2동, 금골3동, 대흥2동, 백금산동, 탐사동의 깊은 협곡을 따라 단층, 소층, 다층, 고층, 다락식살림집들이 조화를 이루며 즐비하게 솟아남으로써 지방이 변혁하는 새시대의 선경이 또 하나 펼쳐졌다.

지난해말 현지에서는 새로 일떠선 살림집입사모임들이 진행되였다.

살림집리용허가증을 수여받은 주민들은 꿈만 같은 현실에 감격을 금치 못해하며 로동당만세, 사회주의만세를 목청

껏 불렀다.

새집들이가 시작되자 광산도시가 들썩하게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집집마다에서는 기쁨의 웃음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언제나 사랑하는 인민을 마음속에 안으시고 위민헌신의 장정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광산마을주민들이 터치는 다함없는 고마움의 목소리가 뜨겁게 울려나왔다.

금골1동의 한 녀인은 TV화면을 통해 삼지연시에 펼쳐진 인민의 리상향을 보면서 정말 부러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런데 오늘 나에게도 이런 꿈같은 행복이 차례졌다, 검덕로동계급의 가정들에 친부모의 정을 부어주시고 도시부럽지 않은 멋진 새집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고마움의 큰절을 삼가 드린다고 말하였다.

검덕광업련합기업소 금골광산 4.5갱의 한 로동자는 돈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자본주의사회 같으면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겠는가, 인민이 주인으로 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있어 검덕의 광부들이 영웅으로 떠받들리우며 오늘은 이렇게 궁궐같은 새집을 받아안았다고 하면서 광물증산성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덕에 보답해갈 결의를 다지였다.

로동당시대의 문명창조와 위대한 변혁이 태동하는 검덕지구에 솟아난 새 선경은 인민의 가슴마다에 당중앙이 펼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참모습으로, 영원한 만복의 화폭으

로 새겨졌다.

지금 공화국에서는 시, 군을 비롯한 지방이 발전하는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에서 지방건설발전을 촉진시키고 사회주의농촌들의 면모를 개변시킬데 대한 중대계획과 구상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지방이 변하는 새시대가 도래하였다는것을 말로가 아니라 실지로 어떻게 변모되고 우리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어떻게 높아지는가를 배심있게 현실로 보여주어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다.

지방건설에서 점령해야 할 목표도 명백히 정해졌다.

앞으로 시, 군을 비롯한 모든 지방들을 삼지연시와 같은 훌륭한 수준으로, 사회주의리상향으로 전변시키는것이다.

이것은 그 어떤 공상도, 점령 못할 고지도 아니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수도와 지방도시의 주민들뿐 아니라 농촌주민들까지도 훌륭한 살림집을 쓰고살면서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와 같은 인민사랑과 숭고한 리상을 실천으로 받들겠다는 불타는 충성심과 높은 포부를 지니고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났다.

얼마든지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모든 지방을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행복의 별천지로 변모시키려는 인민들의 의지와 기세는 충천하다.

세계는 또다시 보게 될것이다.

절세위인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따라 온 나라의 모든 지방이 현대문명이 응축된 리상향,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행복의 무릉도원으로 변모될 휘황한 조선의 래일을.

장천땅의 천지개벽과 더불어

지난해 12월 전 세계의 커다란 이목을 집중시키며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는 나라의 모든 농촌마을들을 사회주의의 맛이 나고 해당 지역의 특성이 뚜렷이 살아나게 건설하는것은 농촌주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훌륭한 생활환경을 제공해주며 국가의 전반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당에서 제일 중시하며 반드시 실현하자고 하는 전략적인 중대계획이라는데 대하여 천명되였다.

가까운 앞날에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을 삼지연시 농촌마을의 수준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만들자는것이 농촌건설정책의 핵심이다.

농촌지역들에 현대적이면서도 독특한 건축미를 자랑하는 마을들이 일떠서게 되면 농업근로자들의 생활환경은 물론 사상의식과 문명수준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것이며 나라의 면모가 사회주의강국의 체모에 맞게 일신되게 될것이다.

전원회의를 계기로 나라의 모든 농촌마을들을 우리식 사회주의의 맛이 나고 해당 지역의 특성이 뚜렷이 살아나게 건설하는 문제가 농촌주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훌륭한 생활환경을

제공해주며 국가의 전반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 중대한 사업으로 부각되게 되였다.

사회주의농촌건설목표에는 온 나라 농촌을 세계가 부러워할 지상락원으로 전변시켜 당을 따라 준엄한 난국을 뚫고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함에 무한히 헌신하여온 농업근로자들에게 문명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시려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의도가 력력히 담겨져있다.

이 구상과 정책에 접한 전국의 농업근로자들을 비롯한 인민들모두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사회주의농촌문명, 지방이 변하는 새세상이 펼쳐지게 된다는 환희로 가슴벅차올랐다.

솟구치는 격정속에 지나온 10년세월을 되새겨보느라니 사회주의농촌을 인민의 리상향으로 전변시키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며 온갖 헌신과 로고를 다 바치신 절세위인의 헌신과 더불어 펼쳐진 천지개벽의 력사가 뜨겁게 어려왔다.

우리식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간고한 투쟁행정에서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한 우리 농업근로자들이 부유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리상향에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이다.

그 불같은 의지를 안으시고 지난 10년세월 농촌건설의 새 력사를 새겨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령도는 정말이지 이 땅우에 장천과 중평땅의 천지개벽과 같은 경이적인 사변

을 안아왔다.

어느해 6월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찾으시여 어버이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이 곳곳마다에 깃들어있는 농장을 온 나라의 본보기농장으로 꾸리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날의 현지지도를 계기로 장천땅은 전변의 새 력사를 맞이했다.

농장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전설, 불멸의 령도업적을 장천의 하늘가에 뚜렷이 새겨주고 농장을 세상에 보란듯이 높이 자랑하고 내세워주고싶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심깊은 사랑과 믿음은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장천땅의 천지개벽을 안아왔다.

본래의 모습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하나의 도시구획을 방불케 하는 현대적인 온실과 공공건물, 농촌문화주택들이 내용과 형식에서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이 꾸려짐으로써 장천땅은 농촌도시, 로동당시대의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되였으며 농장은 사회주의농촌문화건설의 본보기, 기준으로 일신되게 되였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면 아름다운 농촌을 형상한 하나의 대형전경화를 보는것같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말그대로 별천지를 이루었다.

희한한 주택지구와 쌍벽을 이루며 펼쳐진 거대한 온실바다는 바라볼수록 장쾌하다. 드넓은 축구경기장을 방불케 하는

수백동의 온실들이 장천벌을 하얗게 뒤덮었다. 온도와 습도, 해비침도, 이산화탄소함유량을 감시하는 온실환경종합측정장치가 설치된 희한한 남새온실들에는 오이며 도마도를 비롯한 남새들이 바다를 이루고있다.

태양열물가열기와 태양빛전지판이 설치된 단층, 소층농촌문화주택들은 또 어떠한가.

모든 살림살이가 그쯘히 갖추어져있어 새집을 받은 농장원들이 열쇠만 열고 들어와 살림을 시작할수 있게 되였다. 집집마다 사철 태양열물가열기로 끓인 더운물이 콸콸 쏟아지는데 거의 100℃가 되는 물로는 통닭도 튀울수 있어 말그대로 부러운것 없는 생활을 누리게 되였다.

중앙의 예술극장 못지 않게 꾸려진 문화회관, 편의봉사에 필요한 시설물들이 어느 하나 빠진것 없으며 요소요소가 흠잡을데 없이 꾸려진 장천원도 마찬가지이다.

배구장과 수영장, 로라스케트장, 공원과 유원지가 조화롭게 배치되여있고 그 한복판에는 양어장까지 꾸려놓았다.

그뿐이 아니다. 도서실, 전자열람실, 기술학습실, 토양분석실, 병해충검정실 등이 잘 꾸려진 농장의 과학기술보급실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인민대학습당, 농업연구원 등과 련계를 맺고 필요한 과학기술자료들을 검색, 열람할수 있으며 그 어떤 분석도 높은 수준에서 할수 있는 현대적인 설비들이 갖추어져있다.

농장원들은 이 과학기술보급실에서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농업대학의 원격교육을 받을수 있게 되였으며 수많은 농장원들이 이곳에서 선진과학기술을 배우고 앞날의 농산박사, 남새박사로 자라나게 되였다.

아담하고 깨끗한 리인민병원이며 탁아소, 유치원, 학교 등에도 모든 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져있어 농장원들이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였다.

말그대로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은 모든 면에서 농촌문화혁명의 본보기, 기준이다. 수십년전 우리 수령님의 수첩에 《빈봉투농장》으로 올랐던 농장이 2015년에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21세기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되였다.

주체104(2015)년 6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지개벽을 한 장천땅을 1년만에 또다시 찾아주시였다.

그이를 자기들의 일터에 또다시 모시게 된 농장일군들의 가슴은 격정으로 설레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지개벽된 농장을 보니 한폭의 그림같다고, 농장이 21세기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되였다고, 농장원들이 너무 좋아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데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또 하나 풀어드리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농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모든 건축물들과 시설물들을 새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건설한데 대하여, 농장원들의

생활수준이 올라가고 그들이 문명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전망대에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농장의 전경이 그야말로 장관이라고,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은 하나의 농장도시라고 하시면서 농장을 조화롭게 잘 꾸렸다고 거듭 치하해주시였다.

정녕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의 전변은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해주시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민헌신의 숭고한 세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장천땅에 새집들이경사가 났을 때 참으로 볼만하였다.

꿈으로만 여겼던 행복이 눈앞의 현실로 되였으니 농장원들은 뜨거운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사회주의만세, 로동당만세를 목청껏 터치였다.

장천땅에 펼쳐진 전변, 농민들의 생활에서 일어난 변화는 새세기 농촌건설의 높이와 목표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사변이 아닐수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본보기의 기준이 불과 4년만에 또다시 더 높은 경지에로 비약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경북도인민들에게 절실한 그 무엇인가를 하나라도 마련하여주고싶으시여 마음써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몇해전 중평지구에 대규모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을 건설할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였다. 그리고 한달사이에 두차례나 현지

를 답사하시면서 몸소 부지를 잡아주시고 건설을 맡아할 인민군부대들과 강력한 건설지휘부를 편성하여 파견하여주시였으며 매주, 매월 실태를 보고받으시며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대규모의 남새온실농장건설을 맡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기대를 가슴깊이 새긴 인민군군인건설자들은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결사관철의 과감한 돌격전으로 200정보의 드넓은 부지에 320동의 온실과 양묘장, 수백세대의 살림집을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완공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완공을 앞둔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건설장을 또다시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망대에 오르시여 먼지만 흩날리던 이곳에 수십정보의 현대적인 남새온실과 년간 2 000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는 양묘장이 일떠서고 온실농장과 양묘장의 종업원들이 살게 될 수백세대의 소층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 학교, 유치원, 탁아소, 병원, 각종 편의봉사시설들이 즐비하게 들어섰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것이 바로 이런것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이날 새로 건설한 온실들을 돌아보시며 남새생산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농장종업원들의 주택지구를 돌아보시였다.

수백세대의 특색있는 소층살림집과 학교, 유치원, 탁아소,

병원, 편의봉사시설 등이 특색있게 들어선 중평남새온실농장마을은 지난 시기의 문화농촌마을들과는 다른 새로운 특징을 가지고있다.

우선 건물들의 모양이 매우 독특하고 다양한것이다.

50여동의 소층살림집만 보아도 크게 네가지 형에 20여가지의 형태로 건설되였는데 현관이 한개 또는 두개이상인것, 베란다가 앞으로 돌출되였거나 안으로 들어간것 등 여러가지이다.

또한 다른 특징은 건물배치가 집약화되면서도 단조롭지 않은것이다.

지난 시기의 농촌마을들은 대체로 같은 모양의 살림집들을 규모있게 렬을 맞추어 배렬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이곳 주택지구는 살림집들의 밀집도를 높이면서도 건물배치가 다양하게 되여있다. 각이한 모양새를 가진 크고작은 소층살림집들이 서로 마주서기도 하고 등지고있기도 하며 사선으로 잇달아 배치되기도 하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크지 않은 면적에 수십동의 건물이 들어앉았지만 실지 마을에 들어서면 답답한 감이 없고 시원한 느낌을 준다.

또한 공원화, 원림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됨으로써 농촌마을에 대한 일반적인 표상을 완전히 가셔주고있다.

농촌마을이 이렇듯 새로운 경지에서 특색있게 건설되게 된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가 있었기때

문이였다.

웅대한 남새온실농장건설전망계획을 밝혀주시면서 종업원들의 살림집과 문화후생시설을 비롯한 건물들을 기본도로에서 보이는 위치에 현대적으로 문명하게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소층살림집형성안도 몸소 지도하여주시며 주택지구건설과정을 걸음걸음 세심히 보살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자신의 로고는 다 잊으시고 특색있게 꾸려진 농장마을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중평남새온실농장마을은 사회주의농촌문화주택건설의 본보기, 전형으로 내세울수 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앞으로 산간지대의 군들은 삼지연시와 같은 기준에서 건설하며 농촌마을은 경성군 중평남새온실농장마을수준으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발전하는 시대는 리상과 목표를 현실적이면서도 높이 정하고 완강한 실천력을 지니고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며 전진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농촌문화건설에서도 시대적요구에 맞게 부단히 새로운 전형,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것을 불씨로 하여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련대적혁신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날의 귀중한 말씀을 접하고 우리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구상하시는 사회주의농촌의 리상향이 어떤것인지 더욱 잘 알게 되였다.

마침내 중평지구에 대규모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공공건물들과 살림집들이 훌륭히 일떠서 건축미학적으로나 실리적견지에서 그리고 과학화수준에서 나무랄데 없는 또 하나의 전형이 창조되였다.

2019년 12월 위대한 인민사랑의 창조물로 웅장하게 일떠선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조업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몸소 조업식에 참석하시여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인민을 위한 대규모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건설을 발기하시고 멀고 험한 건설장을 거듭 찾으시면서 흙먼지만 날리던 중평지구를 희한하게 전변시켜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며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은 사회주의문명의 높이를 뚜렷이 보여줄수 있게 건축의 실용화, 조형예술화가 실현되고 모든 생산공정이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들로 장비되였으며 과학화, 문화적수준에서도 시대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선 창조물이다.

이런 훌륭한 환경에서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신선한 남새와 나무모를 대량 생산할수 있는 온실들과 양묘장은 앞으로 련속 일떠서게 될 우리 식의 대규모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의 표준이며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리념이 빛나게 구현된 농장마을은 사회주의농촌문화주택건설의 본보기로 된다.

북방의 동해기슭 중평지구에 펼쳐진 희한한 전변은 조국청사에 인민사랑의 대서사시를 끝없이 수놓아가시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뜻과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였으며 자력갱생으로 개척해가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그려주는 또 하나의 귀중한 재부로 되였다.

지금 공화국에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투쟁이 과감히 전개되고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는 2022년도 주요국가건설정책과업들중 최우선적인 과업으로 련포온실농장건설을 내세우고 올해 당창건기념일까지 완공할것을 결정, 포치하였다.

함경남도 함주군 련포지구에 건설하게 되는 련포온실농장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크고 현대적인 온실농장으로서 2년전에 준공한 중평남새온실농장에 비해 규모와 생산능력이 두배에 달하고 남새생산에 필요한 영양공급과 환경관리, 작업공정의 자동화측면에서도 훨씬 발전된 기술과 설비들로 장비되게 된다.

이와 함께 새롭고 다양한 형식의 살림집 1 000여세대를 건설하고 학교와 문화회관, 종합봉사시설을 비롯한 모든 공공건물들도 특색있게 일떠세워 우리 시대의 문명이 응축된 옹근 하나의 농장지구를 새로 형성하게 된다.

련포온실농장을 수만t의 생산능력을 가진 대규모남새생산기지로 건설하는 동시에 선진적인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실물교육농장으로, 우리식 농촌문명창조의 새로운 거점으로, 명실공히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장으로 건설하며 이를 기준으로, 봉화로 하여 나라의 전반적농촌발전을 더욱 강력하고 확신성있게 추진하자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이다.

지난 2월 련포온실농장건설 착공식이 진행되였다.

보람찬 건설전투의 개시를 앞둔 착공식장은 격정의 파도로 설레이였다.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착공식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격동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우리모두 인민들의 집집마다에 피여날 밝은 웃음을 그려보며, 그래서 더 부강해질 조국의 광명한 래일을 내다보며 힘을 내여 인민을 위한 창조물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자고 하시는 그이의 격동적인 호소에 참가자들은 열광의 환호성을 터치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련포온실농장건설 착공식을 기념

하여 몸소 건설의 첫삽을 뜨시고 직접 발파단추를 누르시는 불멸의 화폭을 TV화면으로 보는 인민들도 다함없는 흠모심과 신뢰의 정을 금치 못하였으며 더욱더 휘황해질 앞날에 대한 신심과 환희로 가슴설레였다.

남조선의 언론출판물들에서는 《**김정은**총비서, 온실농장 착공식 연설, <련포창조정신 일으키자>》, 《**김정은**총비서, 온실농장부지 또 찾아 사철 푸른 채소보장》 등의 제목으로 영상사진문헌들을 모시고 신속히 보도하였다.

련포땅에 울려퍼진 장엄한 착공의 발파소리.

그것은 그대로 절세위인의 손길아래 반드시 펼쳐질 우리 시대의 새로운 사회주의농촌문명, 지방이 변하는 새세상,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활짝 꽃펴날 천하제일강국의 휘황한 래일에 터칠 인민의 만세소리, 행복의 웃음소리이다.

우리가 만든 명제품, 명상품이 늘어난다

자력자강의 기치아래 창조와 건설의 동음이 높이 울려가고 있는 이 땅에서는 누구라 할것없이 류다른 감정을 시시각각으로 체험하군 하는것이 있다.

자기의것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는 자랑스러운 현실이다.

결심하면 모든것을 다 이룰 자신이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 인민은 자력자강의 정신력으로 창조적지혜를 발휘하며 세계를 앞서나갈 배짱과 신심에 넘쳐 우리의것이라고 당당히 자부할수 있는 창조물들을 수많이 이루어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것이 태여나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고있는가.

《대동강》상표의 음료들, 《금컵》, 《선흥》, 《삼일포》, 《릉라》, 《봄빛》상표의 식료품들과 《매봉산》, 《류원》, 《보통강》상표의 신발들, 《은하수》와 《봄향기》, 《룡악산》, 《금강산》, 《미래》상표의 화장품들, 《철쭉》상표의 양말들, 《아리랑》상표의 전자제품들, 《소나무》상표의 책가방과 《민들레》라는 이름을 단 학습장 등 우리가 만든

명제품, 명상품들이 매대들을 가득 채우고있다.

어디에 가나 자기 공장, 자기 부문을 대표하고 세상에 당당히 자랑할수 있는 우리의것을 만들어내고있으며 그 령역이 날을 따라 더욱 넓어지고있다.

하나를 만들어도 더 좋게, 더 훌륭하게 만들려는 고심어린 노력과 실천의 결실이여서 그 소중함은 자못 크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물질문화생활에서 높아지고있는 인민들의 질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 그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자면 결정적으로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인민들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훌륭한것을 마련해주어 우리 인민을 보란듯이 내세워주시려고 늘 마음써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념원을 하루빨리 꽃피우시기 위해 그 누구보다 마음을 쓰신분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우리 인민들이 쓰고사는 모든것은 어느것이나 다 완전무결한 최상의것이여야 한다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관을 철저히 구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든것이 흥하는 주체의 조국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려는 우리 인민들의 리상과 념원을 꽃피우시기 위해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일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질문제를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실천적인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물질문화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요구와 수준이 부단히 높아지고있는 오늘날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높이는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특히 질문제는 인민들이 높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할수 있다. 그것은 인민들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은 자기것의 우수성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고있기때문이다.

사실 우리에게는 정치와 군사, 문화분야에서 세상에 대고 소리치며 자랑할만한것들이 많지만 물질경제생활에서는 아직 세계적추세에 뒤떨어진것들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속에서는 다른 나라의 상품을 쳐다보는 현상도 없지 않아 있었다.

경제분야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의 경쟁은 중요하게 제품의 질경쟁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나라의 생산물이 실제로 자본주의나라들의것보다 더 좋아야 우리 민족제일주의, 우리 제도제일주의가 생활에 바탕을 둔 진실하고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는것이다. 생산물의 질을 높여 자본주의나라들을 압도하면 공화국의 존엄과 권위가 더 높아지고 인민들이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것이다.

바로 이러한 현실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쓰고살 모든 생산물과 건설물은 마땅히 그 질에 있어서 최상의것이 되여야 한다는 높은 요구를 제시하시고 탁월한 령도로 빛나게 실천하시였다.

그이의 높은 뜻을 받들어 우리 인민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우리 식의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만들어내기 위한 질제고의 된바람을 일으켜나갔다.

전 사회적으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열풍이 일어났다.

특히 경공업부문에서 식료공장들사이, 화장품공장들사이, 가방공장들사이, 신발공장들사이 등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기업소들사이의 질경쟁이 세차게 일어났고 더 좋은 창조물을 내놓기 위한 투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여 놀라운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공화국에서 유명한 질경쟁으로 되고있는 신의주화장품공장과 평양화장품공장사이의 《봄향기》대《은하수》경쟁을 놓고서도 이것을 잘 알수 있다.

원래 신의주화장품공장과 평양화장품공장사이의 경쟁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직해주신 질경쟁이였다. 그런데 일정한 성과에 만족해하면서 화장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즘즘해지고있었다.

이러한 편향을 제때에 바로잡아주시고 질경쟁열풍을 다시금 세차게 지펴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신의주화장품공장과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서로 경쟁을 하지 않다보니 화장품의 질이 올라가지 못하고있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시며 주체104(2015)년 2월 그 바쁘신 속에서도 평양화장품공장의 생산실태를 알아보시고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화장품을 안겨주기 위한 대책을 세우시기 위하여 평양화장품공장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은하수》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괜찮은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제품들과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화장품을 생산하는데 모를 박고 투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현대적인 공장, 만점짜리 공장, 우리나라 화장품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완전히 일신시킬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이후 평양화장품공장은 짧은 기간내에 우리 나라 화장품공장의 전형단위, 표준으로 훌륭히 전변되게 되였다.

화장품산업에서 신의주화장품공장과 평양화장품공장은 쌍기둥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이들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화장품들과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여러가지 종류의 화장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경쟁

심을 더욱 고조시켜나갔다.

서로 승부를 다투며 질경쟁의 도수가 날로 높아가는 속에 신의주화장품공장과 평양화장품공장을 비롯한 우리 나라 화장품공장들에서 그 가지수를 다 헤아릴수 없는 다종다양한 화장품들이 경쟁적으로 쏟아져나오고 우리 사람들은 어느것이 더 좋은지 분간할새도 없이 미처 골라 쓰지 못하고있는 희한한 현실이 펼쳐지게 되였다.

최근에는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여러가지 용도의 기능성화장품들을 대대적으로 개발생산하기 위한 경쟁열풍이 날로 고조되여 우리 나라의 천연재료를 기본으로 하고 그 성능이 뛰여난 갖가지 상표의 화장품들이 녀성들뿐 아니라 남성들속에서도 대단한 인기를 모으고있다.

질경쟁은 화장품공장들만이 아니라 식료, 신발, 피복 등 경공업의 전반부문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여 오늘 공화국에서는 시대를 대표하고 인민들이 즐겨 찾는 명제품, 명상품들이 줄지어 쏟아지고있다.

류원신발공장, 원산구두공장을 비롯하여 신발공업부문에서만도 세계와 당당히 겨룰수 있는 질좋은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자들의 열의도 만만치 않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각별한 손길아래 우리 인민들속에 명성이 자자한 공장으로 전변된 원산구두공장에서는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매봉산》상표를 단 다양한 종류의 질좋은 신발

들을 생산해내고있다.

이들은 여러 차례나 공장을 찾아오시여 몸소 신발의 무게까지 헤아리시며 계절과 용도에 따라 신기에도 편리하고 보기에도 맵시있으며 나이별특성에도 맞는 가볍고 든든한 여러가지 구두를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간곡한 말씀을 명심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악하게 노력하였다.

생산공정의 기술개건을 다그쳐 구두의 경량화를 실현하고 공장제품과 다른 나라 제품을 대비분석도 해보면서 어떻게 해서나 구두를 한컬레 만들어도 세계적수준에서 질적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제품의 질을 부단히 개선해나가고있다.

특히 이 공장에서는 구두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들을 국산화하여 100% 우리의 원료와 기술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신발들을 꽝꽝 만들어내기 위해 더욱 분발하고있다.

2018년에 진행된 《전국신발전시회-2018》에는 류원신발공장, 원산구두공장,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신발공업관리국 신발연구소를 비롯한 신발생산 및 과학교육부문의 60여개 단위들에서 자기 단위를 대표할수 있는 명제품들, 사람들의 기호와 계절, 용도에 따르는 신발들과 자재들이 940여종에 3만 1 000여점이나 출품되여 서로서로 경쟁을 벌리였다.

전시회에서 《매봉산》상표의 신발제품들이 사람들속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으며 원산구두공장은 경쟁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니였다.

식료부문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를 받들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상품들을 개발생산하기 위해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 눈부신 비약을 이룩하였다.

생각해보면 고난의 그 시절에 우리 인민은 매대들에 놓인 다른 나라의 식료품들을 보면서 언제면 저 자리에 우리의 상표를 단 질좋은 식료품들이 꽉 들어찰가 하는 생각이 간절하였다.

그런 소망이 이제는 옛일로 되였다.

그 어느 상점에 가도 《금컵》, 《선흥》, 《송도원》과 같이 포장에서부터 그 질에 이르기까지 한다하는 수입식료품에 비할바없는 명상품들이 우리 인민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있다.

식료품생산과 리용에서 발전된 다른 나라의 수준을 릉가하기 위한 경쟁심이 만만치 않다.

지금 세계적으로 천연음료수에 대한 수요가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사람들이 리용하는 음료수의 질이 곧 문명의 발전정도를 평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민들에게 한가지라도 더 좋고 더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한 사랑속에서 건강에 좋은 샘물을 생산하는 룡악산샘물공장과 치료폭과 효과가 커서 사람들속에서 인기가 대단히 높은 약수를 생

산하는 강서약수공장을 비롯한 나라의 많은 샘물공장들까지 현대적으로 개건되여 큰 은을 내고있다.

룡악산샘물은 물맛이 좋고 사람들의 건강에 리로운 각종 광물질과 주요이온들이 리상적으로 함유되여있어 먹는물로뿐아니라 여러가지 질병치료에도 효과가 매우 큰것으로 하여 장수샘물로 그 이름 높다.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프랑스와 중국, 스위스 등 세계적으로 이름났다고 하는 샘물들의 수질분석표를 대비적으로 보면 룡악산샘물에는 건강장수에 좋은 셀렌과 불소가 가장 적합하게 들어있다.

룡악산샘물공장에서는 제품의 질제고를 최우선적인 사업으로 놓고 생산공정과 생산환경에 대한 무균, 무진화체계를 철저하게 확립하였다.

1계렬 샘물정제공정만 놓고보아도 먹는물을 생산하는 특성에 맞게 생산현장들을 외부와 격페시키고 위생통과실을 꾸리고 공기조화 및 정화설비들을 그쯘하게 갖추어놓음으로써 무균화, 무진화를 완벽하게 실현하고있으며 샘물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담보하고있다.

2015년에 공화국에서는 12월15일품질메달이 새로 제정되였다.

이 메달의 제정은 전국적범위에서 질제고를 위한 사회주의경쟁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는데 목적을 두었다.

국제적인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들가운데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대외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제품, 국내에서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을뿐 아니라 인민생활에서 실지 은을 내고있는 제품, 자기 지방의 개성이 뚜렷하고 민족고유의 특성을 살리면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제품들이 이 메달의 수여대상으로 된다.

12월15일품질메달은 생산과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질경쟁열의를 더욱 고조시키는 작용을 하고있다.

메달이 제정되자마자 대동강식료공장과 대동강맥주공장, 천지윤활유공장, 천리마타일공장, 사리원대성타올공장, 평양가방공장, 선흥식료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메달을 수여받는 영예를 지니였다.

이 공장들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질적지표는 대단히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있다.

메달수여순위에서 앞선 자리를 차지한 대동강맥주공장의 대동강맥주만 보더라도 국제적인 품질관리체계(ISO 9001)와 식품안전관리체계(HACCP)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12월15일품질메달의 수여기준이 대단히 엄격하고 높다는 사실을 잘 알수 있다.

몇해전 영국주간잡지 《에코노미스트》, 로이터통신 등이 대동강맥주의 독특한 맛에 대하여 널리 소개하였다. 어느한 출판물에는 《이럴수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물리화학 및 오

감분석까지 한 결과 대동강맥주를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린것도 이 제품의 높은 질적수준에 대한 평가의 일단이라고 할수 있다.

2019년에만도 전국각지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제품의 질제고를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수십여개 단위의 많은 생산공정들이 품질인증을 받았으며 여러 단위에서 생산되는 백수십여점의 제품이 우수한 제품으로 새로 등록되였다.

세계적으로도 우리 상품에 대한 평가와 인기가 대단하다.

지금까지 30여가지의 《은하수》화장품들이 유라시아경제동맹의 인증을 받았고 유럽의 이름난 화장품과의 대비분석에서 월등한것으로 평가된 《봄향기》화장품에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발명가메달과 증서가 수여된것과 같은 사실들은 자체의 힘으로 얼마든지 세계적인것을 창조해낼수 있다는 확신과 긍지를 안겨준 계기로 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만든 명제품, 명상품들이 매대들에서 다른 나라의것을 하나하나 밀어내고 꽉 채워지고있으며 인민들은 그 모습에서 더없는 자부를 느끼고있다.

적대세력들의 제재책동이 가중되고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더욱 심각해지는 오늘날 국산화는 경공업부문에서 더욱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최근년간 공화국에서는 지난 시기 원료와 자재, 설비가 부족하면 국경밖을 넘겨다보던 그릇된 관점을 철저히 극복하고

우리의 원료와 자재, 우리의 기술로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더 좋게 만들기 위한 힘찬 투쟁이 벌어지고있다.

우리 학생들이 애용하는 《소나무》책가방을 비롯하여 가방용천생산을 국산화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경험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현대적인 가방용천생산공정을 새로 꾸릴 대담한 목표밑에 수십대에 달하는 유연창대직기들을 짧은 기간에 개조함으로써 수입산직기가 아니면 가방천을 짤수 없다고 하던 기존관념을 깨버리였다.

과학자들과 로동계급은 외국에서 사다 쓰는것으로 되여있던 고온고압로라염색기를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끝끝내 만들어내여 가방천염색도 국산화하였다.

이들이 자체의 힘으로 설계제작한 고온고압로라염색기는 염색 전 과정이 프로그람에 의하여 자동조종되는 첨단설비로서 그 정밀도와 자동화수준이 매우 높을뿐 아니라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염색공정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체계를 실현할수 있게 되였다.

자력자강의 정신력의 분출은 이렇듯 우리의 원료로 만든 실을 가지고 우리가 만든 질좋은 가방용천으로 학생용가방생산을 마음먹은대로 할수 있는 자랑찬 현실을 펼쳐놓았다.

평양곡산공장에서도 지식경제시대의 체모에 맞게 모든 생산공정들을 자동화, 흐름선화, 무인화하였을뿐 아니라 수십

종에 백수십여대의 기계를 자체로 제작설치한것을 비롯하여 국산화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켰다.

공업적인 방법으로 강냉이를 가공하여 물엿과 당을 얻어내는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확립해놓은것을 비롯하여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질높은 제품들을 꽝꽝 생산해내고있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는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자동조사기부속품들과 기료품들을 국산화하여 자동조사기의 능률을 제고하였으며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과 이 공장기술자들이 합심하여 PLC프로그람을 우리 식으로 개발함으로써 생산정상화의 큰 문제를 해결하였다.

오늘날 세계가 보건위기로 하여 심각한 사회경제적혼란을 겪고있다.

하지만 공화국은 사상최대의 제재압박과 세계적인 전염병사태로 인한 엄중한 난관속에서도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끄떡없이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새로운 승리의 진군을 다그쳐나가고있다.

조선의 이러한 현실에 세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적지 않은 경제분석가들도 국제적인 제재가 계속되고있지만 조선에서서는 나라의 경제가 계속 성장할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하고있다.

당 제8차대회에서는 경제발전의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여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는것을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총적방향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관건적고리로 틀어쥐고 투자를 집중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경공업부문에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것을 새로운 5개년계획의 중심과업으로 설정하였다.

지금 경공업부문을 비롯하여 인민생활과 련관된 부문에서는 당 제8차대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모든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인민소비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고 우리의것이라고 당당히 자부할수 있는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와 같이 분발해나서고있다.

최근에 평양을 비롯하여 각 도들에서 인민소비품전시회가 활발하게 진행되였는데 대단한 관심과 호평을 불러일으켰다.

평양시에서 진행된 전시회에는 성, 중앙기관, 시안의 각급 공장, 기업소 170여개의 단위들에서 만든 천수백여종에 수십만여점의 상품들이 출품되였다.

그 어느때보다도 조건이 어렵지만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국내의 원료를 가지고 특색있고 질좋게 만든 여러가지

상품들이 전시장을 가득 채우고있는 전경앞에서 사람들은 자기것에 대한 자부, 자기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게 하였다.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한것이 있다.

우리 원료, 자재로 만든 제품들이 얼마나 훌륭한가.

이렇게 좋은 우리 제품들이 있는데야 왜 남의것을 넘겨다 보겠는가.

세계를 누를수 있는 우리의 명제품, 명상품을 더 많이 만들겠다.

그렇다.

우리의 명제품, 명상품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세상에 부럼없는 사회주의만복을 누려갈 행복의 래일은 앞당겨지는것이다.

절세위인의 세심한 손길아래 우리 인민들은 앞으로 쓰고사는 모든 생활령역에서 세계를 누르는 우리의것을 가득 채워갈것이며 이 땅에서는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희열에 넘쳐 터치는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퍼질것이다.

행복의 래일을 마중가는 인민의 환희가 노래로 울려퍼진다.

제손으로 뿌린 씨앗 피땀으로 가꿔온 우리
결심하면 모든것을 다 이룰 자신이 있다네
앞당기자 멋진 래일 광휘로운 우리의 래일
눈앞에 기다리는 행복인데 우리 왜 못이루랴

사회주의바다향기, 과일향기 온 나라에 차넘쳐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향한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나날에 매일, 매 시각 눈부신 기적과 신화들이 창조되고있는 환희로운 오늘을 반영하고 앞으로의 끝없이 흥할 징조를 예고해주는 수많은 시대어들이 태여났다.

황금해, 사회주의바다향기, 이채어경, 철령아래 사과바다…

오늘 우리의 생활에서 너무도 친근해진 이 시대어들에도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하제일강국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꽃피워가시려는 절세의 위인의 불같은 의지와 헌신 그리고 령도자께 무한히 충직한 인민의 애국적열의가 어려있다.

이 시대어들과 더불어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서는 얼마나 흐뭇하고 이채로운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지금도 사람들은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지던 나날들을 잊지 못하고있다.

2014년에 동서해에서 쌍으로 일어난 물고기사태와 더불어 황금해의 새 력사가 시작되고 온 나라가 흥성이며 사회주의바다향기를 노래했다.

그 다음해인 2015년에는 하루동안에만도 지난 시기 한해 생산량과 맞먹는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기적이 창조되여 동해포구에 새로운 선경—《이채어경》이 꽃펴났다.

그렇게 해마다 비약하여 2016년에는 그 전해의 집중어로전투기간보다 몇배나 더 많은 물고기산을 쌓아 새로운 어로신화를 기록하였다.

2017년에도 《바다 만풍가》의 흥겨운 노래소리높이 동서해의 포구마다에서 또다시 흐뭇한 물고기대풍을 안아왔다. 도루메기집중어로전투기간에만도 하루 최고 수천t의 어획고를 기록하고 년간 물고기잡이목표를 한달이상이나 앞당겨 점령함으로써 황금해의 새 력사를 빛내이였다.

2019년 겨울철집중어로전투기간에만 하여도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는 전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십만t의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창조하며 사회주의바다향기를 더욱 짙게 하였다.

사실 물고기문제의 해결전망이 이렇게까지 빨리 열리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황금해가 이제 더는 말이나 상상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고 인민이 직접 향유하는 행복의 상징으로 되고있다.

강국의 아름다운 꿈은 인민들의 식탁에서 풍기는 사회주의바다향기와 더불어 꽃펴나고있는것이다.

공화국의 수산자원은 세상에 대고 자랑할만하며 이러한 잠재력을 토대로 한 수산의 발전전망은 참으로 휘황하다.

이렇듯 놀라운 변화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자연의 조화나 혜택은 더우기 아니다.

하다면 어떻게 이런 가슴벅찬 현실이 일어나게 되였는가.

다시는 일어설수 없다던 수산부문이였다.

사회주의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심을 허물어뜨릴 간악한 흉계밑에 감행되는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봉쇄책동은 수산부문에도 막대한 후과를 미치였다.

바다에 띄울 배도 그리고 연유며 어구 등 모든것이 부족하였다.

패배주의에 물젖은 일부 사람들은 배가 어떻소, 어황조건이 어떻소 하면서 바다에 나가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며 지어 우리 나라에는 물고기가 없다는 잡소리까지 나오고있었다.

그리하여 지난 시기 그렇게도 흔하던 물고기가 인민들의 식탁에 오르는것이 힘들어지게 되였다.

그런 속에서 수산부문을 다시 일으켜세우는것이야말로 적대세력들과의 또 하나의 포성없는 전쟁, 사회주의수호전이 아닐수 없었다.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수도시민들에게 물고기를 먹이시기 위해 그처럼 마음쓰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념원을 그대로 안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저으며 다시 추서기 어렵다고만 생각하고있던 수산

부문에 힘을 넣어 획기적전환을 일으키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였다.

우리에게 있어서 군인들과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선차적인 과업은 없다고,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 원아들과 양로원의 로인들에게 매일 물고기를 300g씩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을 인민군대의 수산부문에 맡기기로 결심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직접 조직해주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뜨겁게 어려있는 8월25일수산사업소의 면모를 일신시켜주시고 품을 들여 마련한 네척의 현대적인 고기배를 사업소에 보내주시며 고기배당 1 000t씩 4 000t의 물고기를 잡을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이의 구상과 의도를 받들고 이곳 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물고기잡이전투를 벌리여 자신들도 믿기 어려운 어로신화를 창조하였다.

황금해의 새 력사는 바로 네척의 《단풍》호고기배와 4 000t의 물고기잡이로부터 시작되였다고 할수 있다.

8월25일수산사업소는 《단풍》호고기배들의 고향, 황금해력사창조의 고향, 《바다 만풍가》의 고향으로 세상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침략의 무리들이 항공모함을 비롯한 각종 함선들을 미친듯이 들이밀어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올 때 바다에 군함이 아니라 현대적인 《단풍》호고기배들을 띄워주신 그이께서는 여러 수산사업소들을 여러 차례나 찾으시여 동해포구들에 《이채어경》을 펼친 수산전사들을 고무해주시였다.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1월8일수산사업소를 전국의 본보기, 표본으로 훌륭하게 일떠세워주시여 해마다 물고기사태, 물고기대풍을 안아오도록 해주시였다. 원아들과 양로원의 로인들에게 하루 300g의 물고기를 먹이시기 위해 몸소 수첩에 그 수량도 계산해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8년에는 그들의 물고기급식량을 400g으로 늘여 공급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주시였다.

그이의 헌신의 로고가 있어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불리한 어황조건과 부족한 설비, 자재조건으로 어쩔수 없는것으로만 여겨왔던 수산부문에서 새로운 시대속도창조의 돌파구를 열고 전례없는 물고기대풍으로 통장훈을 불렀던것이다.

그이께서는 광란하는 날바다우에서 피와 땀, 목숨까지 바쳐가며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린 수산전사들의 전투성과를 높이 치하해주시였으며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3년 12월, 2015년 12월 조선인민군 수산부문 열성자회의에 몸소 참석하시여 장시간에 걸쳐 참가자 한사람한사람에게 높은 국가수훈을 안겨주시며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언제나 선창에 물고기가 넘쳐나게 하고 포구마다에서는 만선의 배고동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고 뜨겁게 호소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대 수산전사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사회의 수산부문을 빨리 추켜세우는데도 힘을 넣으시였다.

주체104(2015)년 5월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이 기업소가 사회의 수산부문들가운데서 제일먼저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적역할을 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그이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기적과 혁신의 근본원천이였고 평범한 어로공들을 당정책의 절대적인 신봉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들로 키운 자양분이였다.

그리하여 사회의 수산부문들에서는 인민군대의 어로전사들처럼 당정책은 한몸을 내대고 결사관철해야 한다는 투철한 정신을 가다듬고 수산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갔다.

수산부문에 일어번진 수산열풍은 이채어경의 놀라운 변화를 안아왔다.

랭동저장고들마다 물고기랭동블로크들이 키높이 쌓여있는것도 지난 시기에 볼수 없었던 풍경이고 물고기랭동블로크들을

그득히 실은 자동차들이 물고기비린내를 풍기며 달리는것도 황금해력사창조의 나날에 생겨난 이채로운 풍경이다.

물고기가 없다던 바다에서 물고기풍년이 이룩되고 그 풍년에 이어 물고기가 넘쳐나 미처 처리하지 못하는 행복한 《고민거리》까지 생겨나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로고, 기어이 우리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풍족히 먹이시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고야말 불같은 열정이 안아올린 현실이였다.

사랑이 하늘에 닿으면 기적을 낳는다고 하였다.

물고기가 영영 없는줄로만 알았던 우리의 바다가에서 풍어의 노래가 다시 울리고 외진 최전연초소는 물론 육아원과 애육원, 양로원을 거쳐 탄광과 발전소마을들에 이르기까지 진하고진한 사회주의바다향기가 한껏 풍겨가고있다.

사랑이 낳은 기적이였다.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아이들과 인민들을 위하는 위대한 어머니의 마음이 하늘에 닿아서 생긴 력사의 기적이였다.

인민을 위한 그이의 사랑이 산처럼 쌓이고쌓여 동서해의 어장들에서 고기배들마다 만선기를 휘날리게 하였고 물고기들이 병사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며 고난의 시기에는 듣기조차 힘들던 물고기이야기가 이제는 례사로운 말로 되였다.

그 어느 분야보다 뒤떨어졌던 수산부문, 많은 투자와

시간이 요구되는 부문에서 그처럼 짧은 기간에 상상을 초월하는 물고기풍년을 안아왔다는것은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과시이고 앞으로 더 크게 소리치며 잘살 날이 오고야만다는 위대한 전환의 힘찬 고고성이였다.

이뿐이 아니다.

전국의 양어장들과 메기공장들에서도 물고기사태가 일어나고있다.

사실 지난 기간 곳곳에 양어장들을 많이 건설하였으나 양어를 근기있게 밀고나가지 못하다보니 품들여 건설해놓은 양어장들이 제대로 은을 내지 못하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양어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절대로 소홀히 할수 없으며 중도반단하여도 안된다고 하시면서 양어장들을 정비보강하고 현대화하며 물고기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게 할데 대한 귀중한 말씀을 주시였다.

어떻게 해서나 나라의 양어부문을 추켜세우실 확고한 결심을 지니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찾고찾으신 양어장들이 그 얼마인지 모른다.

끊임없이 새겨가신 그이의 헌신의 자욱과 더불어 또 얼마나 많은 양어기지들이 소리치며 일떠섰던가.

한때 주저앉을번하였던 평양메기공장을 찾아주시고 대담한 조치를 취해주시여 현대적인 표준공장으로 일떠서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양어부문의 본보기, 표준공장으로 훌륭히 일떠선 평양메기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는 거듭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을 치하해주시며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공장의 여러곳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였다.

오늘날 평양메기공장에 가면 양어못마다 먹음직스러운 메기들이 욱실거리는 흐뭇한 광경이 사시절 펼쳐지고있으며 시내의 봉사망들에서는 구수한 메기탕을 비롯하여 갖가지 메기료리들이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고있다.

어버이장군님의 애국유산의 하나인 삼천메기공장의 전변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로고와 심혈이 깃들어있다.

여러 차례나 공장을 찾으시여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념원이 깃들어있는 공장을 세계적수준의 메기생산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해 현대화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직접 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손길아래 현대적으로 꾸려진 공장에서 매해 년간메기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게 되였다. 공장에서는 양어의 공업화, 집약화를 실현하여 얼마 크지 않은 부지면적에서 1년에 수천t의 물고기를 생산하고있다.

자연지리적으로나 생태환경적으로 양어하기에 가장 리상적인 곳에 자리잡고있는 신창양어장은 생산면적과 생산량에 있어서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대규모의 양어장이다.

세계적인 양어기지로 전변된 신창양어장에서는 철갑상어와 칠색송어양어를 기본으로 하고있는데 수십정보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에 2백여개의 야외양어못과 하천양어못, 철갑상어알깨우기실과 칠색송어알깨우기실을 비롯한 생산건물과 생활건물들이 자리잡고 못들사이에 수종이 좋은 수많은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고 양어못들에서는 고기떼가 욱실거리고 있다.

절세위인의 령도아래 바다양어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자욱이 새겨진 대규모련어종어기지, 굴지의 양어기지로 전변된 석막대서양련어종어장에서는 맛도 좋을뿐 아니라 다른 련어들에 비하여 생활력이 강하고 자라는 속도도 빠른 민물련어들이 양어못이 넘쳐나게 욱실거리고 양어못이 모자라 퇴수로에서는 《결방살이》를 하는 칠색송어들이 꼬리친다.

이곳에서 기른 맛좋은 민물련어들이 물고기상점들과 수산물식당을 비롯한 봉사기지들에 공급되여 이제는 우리 인민들이 철갑상어에 이어 고급어족인 련어로 갖가지 료리를 맛보게 되였다.

락산바다련어양어사업소도 대서양련어양어와 련어가공을 과학화, 현대화, 공업화한 우리 나라 바다양어의 본보기, 표준으로 보다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다. 이곳에서 만든 련어

훈제는 쫄깃쫄깃하면서도 맛도 독특하여 사람들속에서 인기가 대단하다.

우리 인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고급어족들을 먹이시려고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한 사랑의 손길에 의해 연풍호방류어업사업소가 새로 일떠서 살이 연하고 영양가가 높으며 맛이 좋아 민물우레기라고 부르는 쏘가리도 대대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우리 인민들은 현대적으로 꾸려진 봉사망들에서 갖가지 고급어족료리들을 봉사받으며 양어업의 덕을 톡톡히 보고있다.

대동강기슭에 독특한 건축미를 자랑하며 현대적으로 일떠선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에 가보면 사회주의바다향기의 덕이 어떤것인가를 직접 체험할수 있다.

물우에 떠있는 배를 형상하여 특색있게 건설된 식당의 1층에는 칠색송어, 민물련어, 룡정어, 철갑상어를 비롯한 고급어족들과 조개류들이 욱실거리는 커다란 실내못들과 낚시터 등이 꾸려져있다. 손님들은 여기에서 건져낸 산 물고기로 만든 료리를 즉석에서 봉사받고있다.

이 식당의 특식인 철갑상어회국수는 산 철갑상어를 그 자리에서 잡아서 료리한것으로서 그 독특한 맛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인기가 대단하다.

찾아오는 사람들로 언제나 흥성이는 이 식당이야말로 인민을 위해 바쳐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대동강의

흐름처럼 끝이 없이 흘러드는 곳이다.

이렇듯 온 나라에 차넘치는 물고기비린내는 사회주의만복을 지향하는 인민의 꿈이 꽃펴나는 이 땅에서만이 풍길수 있는 행복의 향기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나라의 과수업도 눈부신 비약을 이룩하면서 이 땅우에 과일향기가 차넘치게 하고있다.

우리 인민들에게 사철 맛좋고 신선한 과일을 먹이시려고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과 유훈을 빛나게 실현하시기 위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과수업발전에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시였다.

철령아래 사과바다.

이 시대어에 담겨진 절세위인의 헌신의 세계는 참으로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게 한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 가장 위대한 우리 인민을 남부럽지 않게 잘살게 하고 우리 나라를 과일향기 넘쳐나는 인민의 나라로 만드시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3년 6월 고산과수농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강화발전시켜주시였다.

사실 새로운 과수원조성과 운영은 막대한 투자를 요구하는 사업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천여정보의 과일밭조성과 키낮은 사과나무품종을 들여오는 문제, 과일가공기지와 과일보관고

건설을 비롯하여 과수농장건설과 과수업을 추켜세우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다. 고산과수농장을 찾으시여 과일가공기지건설과 과일보관고건설에서 걸린 문제도 풀어주시였으며 과일농사의 종합적기계화에 필요한 현대적인 농기계와 농기구, 운반용기, 륜전기재들도 보내주시는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2016년 고산과수종합농장에서는 과수력사에 있어본적 없는 희한한 현실, 지난 시기에 비하여 과일생산량을 단번에 몇배로 끌어올리는 기적이 창조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고산땅이 생겨 처음 보는 과일대풍을 이룩했다는 편지를 받아보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금같은 시간을 내시여 한달음에 달려오시였다.

전례없는 과일대풍을 이룩한 철령아래 사과바다!

정녕 철령아래 펼쳐진 사과바다는 한평생 인민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현실로 활짝 꽃피워가시려는 원수님의 간절한 꿈의 바다, 소원의 바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처럼 간절하게 바라시던 꿈이 끝내 현실로 펼쳐진 희한한 광경이 너무도 소중하시여 돌아보시는 전 구간 시종 사과나무들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하루빨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에게 이 사과를 보내주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알알이 빨갛고 탐스러운 사과알들을 가득 실은 기차와

자동차들이 평양으로, 함흥으로, 원산으로 인민을 찾아 전속으로 달려갔다.

역두마다에서, 흥성이는 과일매대들에서, 육아원과 애육원을 비롯하여 고산의 사과를 받아안은 모든 곳들에서 기쁨의 웃음소리, 감격에 목메인 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인민의 마음속에 희망과 신심, 승리에 대한 드높은 락관을 안겨주며 철령아래 과일파도가 온 나라를 뜨겁게 휩싸안았다.

철령아래 사과바다, 고산땅에 펼쳐진 붉은 사과바다는 우리 인민이 조여맨 허리띠가 또 한번 풀려나가는 가슴후련한 사변이였다.

대규모과일생산기지인 과일군에서도 보기 드문 사과풍년으로 흥하는 시대의 풍미를 더해주었다.

2017년 이 농장에서는 정보당 70～80t 지어 100t의 과일을 생산한 과수작업반들이 많았는데 사과나무 한그루당 평균 200알이상, 최고 300알이상 달린 사과나무들도 많았다.

2017년 9월 과일군을 찾으시였던 원수님께서는 가지가 휘여지게 달린 사과알들을 한알한알 만져보시며 이런것을 보고 땅이 꺼지게 열매가 주렁졌다고 말한다고, 끔찍이도 많이 달렸다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 심었더니 마을에 웃음이 폈소 처녀들 아침낮에 꽃보며 웃고 저녁에는 꽃속에서 노래

부르오라는 노래의 구절처럼 나라의 이름있는 대규모과일생산기지들마다에 펼쳐진 과일풍년전경은 사회주의승리의 대전경화라고 해야 할것이다.

여기서는 출렁이는 과일의 파도만이 아니라 끝없이 비약하는 시대에 행복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로 주렁지는 환희의 세월이 눈앞에 보인다.

열매는 저절로 무르익지 않는다.

우리 나라 굴지의 과일생산기지인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어린 절세위인의 불멸의 자욱이 력력히 말해주고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마다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찾고 찾으시며 온 나라에 과수열풍을 일으키는데서 기치를 들고나가도록 세심히 지도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그이의 세심하고도 정력적인 지도가 있어 이 농장에서는 해마다 불리한 조건에서도 과일대풍을 안아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2017년 11월에 전국의 과수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회합을 의의깊게 진행하도록 하시고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 《과수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를 보내주시여 과수부문에서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과수부문에서는 대규모농장들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군안의 농장들사이, 작업반들사이, 분조들

사이에 과일수확고경쟁, 과일맛경쟁, 선진기술도입경쟁을 비롯한 여러가지 경쟁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직접 조직해주신 사과맛경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있는데 해마다 단맛과 신맛, 향기, 굳기, 수분을 기본으로 하여 사과맛을 평가하는 사과맛품평회가 경쟁열기속에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이러한 경쟁열풍속에 우리 인민은 이제는 그 맛에서도 으뜸인 우리 나라의 사과를 비롯한 여러가지 과일들을 맛보며 생활하게 되였다.

이 땅우에 차넘치는 사회주의만복의 향기는 비단 바다향기, 과일향기만이 아니다.

전국의 도처에 일떠선 버섯공장들에서는 영양가높은 갖가지 버섯들이 쏟아져나오고 남새온실들에서도 사시절 푸르싱싱한 남새바다가 펼쳐져 인민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고있다.

적대세력들은 우리가 잘사는것을 한사코 가로막으려고 고립압살의 살풍을 몰아오고있지만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뿌려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꾸어가시는 풍성한 만복의 씨앗들이 주렁지게 될 희망넘친 행복의 래일을 확신하며 새로운 승리의 진군길을 다그쳐가고있다.

새세기 교육혁명의 열풍속에

교육과 인재는 력사의 어느 시대에서나 나라와 민족의 발전전도를 좌우하는 기본요인으로 되여왔다.

그러나 오늘처럼 인재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직접적요인으로 되고 교육이 사회적진보와 문명발전에서 초미의 문제로 제기된 때는 일찌기 없었다.

교육사업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으로 중시해야 할 국사중의 국사이다.

지난 10년간 공화국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여 새세기 교육혁명수행의 돌파구가 열리였으며 교육사업전반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면서 세계적인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높은 목표가 하나하나 실천되여가고있다.

현시대의 요구와 세계교육발전추세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전변시키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새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시였다.

새세기 교육혁명을 일으키는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백년지계의 국가대사이다.

나라의 모든 청소년학생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우리 나라를 21세기 교육강국으로 되게 하는것이 새세기 교육혁명의 목표이다.

새세기 교육혁명의 첫 포성은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이다.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되는 2012년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력사에 아로새겨진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조국관, 후대관, 미래관의 결정체로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일떠세우는데서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되였다.

교육발전력사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단계인 12년제의무교육은 1년동안의 학교전교육과 5년제소학교, 3년제초급중학교와 3년제고급중학교에 이르는 12년동안의 체계적인 교육기간에 일반기초지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을 배워주어 새세대들모두에게 일할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전 기간 교육을 주는 의무교육체계이다.

교종간의 련계와 학제가 가장 합리적으로 편성되여있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요구와 세계적추이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새세대들을

중등일반지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 창조적능력을 소유한 주체형의 혁명인재로 키우는 가장 정당하고 우월한 교육이다.

공화국에서는 2012년부터 한푼의 자금이 귀중한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교육부문에 국가적투자가 집중되고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를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였다.

교과서집필을 위한 조직사업과 새 교사를 건설하고 교원수를 늘이기 위한 대책이 치밀하게 조직진행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관심과 조치에 의해 교과서용종이보장과 교과서생산보장체계도 빈틈없이 세워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4년 8월 《새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교육혁명을 일으키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2014년 9월에 있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2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의 집행정형이 총화되였으며 2017년 4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회의에서는 교육혁명수행에서 기본고리는 중등일반교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것이라는데 대해 강조되였다.

이 과정에 이룩된 성과는 참으로 컸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총적목표와 교종별, 학과목별도달

기준을 바로 정하고 교수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확정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교종별과정안과 교수요강을 작성하여 각급 학교들에 시달되였다.

새로 개정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에 따라 유치원으로부터 소학교, 초급, 고급중학교에 이르기까지 교과서, 교수참고서가 100% 다시 편찬발행되였으며 전국의 학생들에게 공급할 수백여종의 교과서발행사업이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완료되였다.

학생들의 년령심리적특성과 인식과정의 합법칙성에 맞는 140여종의 과목별 교육지원용다매체편집물들을 제작보급하여 각급 학교들에서 교수와 실험실습에 리용하도록 하였으며 교육행정관리를 정보화하고 보통교육부문의 교육기관들을 국가콤퓨터망에 가입시킨데 이어 여러 교육관련홈페지를 개설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였다.

공화국에서는 교육부문을 현대화하는 사업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문제가 국가중대사로, 국가의 장래와 관련되는 중차대한 문제로 간주되고 교육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사소한것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고 국가적으로 교육부문을 우선시하는 기풍, 기강을 세우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였다.

그 과정에 새세기 교육혁명의 요구에 맞게 대학과 보통교육부문의 각급 학교들에서 다기능교실을 꾸릴데 대한

조치가 취해져 온 나라 교정들에서는 다매체편집물을 비롯한 현대적인 직관연시수단들을 사용하면서 깨우쳐주는 교수를 진행할수 있게 되였다.

민들레학습장공장과 룡봉학용품공장이 현대적으로 일떠서 민들레학습장과 학용품들이 산간마을의 어린이들에게까지 차례지고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전국의 학생들에게 새 교복과 《소나무》책가방이 공급되였다.

교육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가 늘어나는것과 함께 전 사회적으로 교육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열풍이 그 어느때보다 세차게 일어번져 교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서도 혁신적인 성과들이 련이어 일어났다.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놀라운 전변이 일어났다.

나라의 중등교육환경의 본보기, 표준으로 건설된 평양중등학원만 놓고봐도 다기능화, 정보화된 교실들, 실험실, 실습실이 있는 교사와 수영을 비롯한 여러가지 운동을 할수 있게 꾸려진 체육관, 기숙사, 관리건물 등 모든 조건과 환경이 원아들의 학습과 생활에 편리하게,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최근년간 평양중등학원과 같은 본보기를 적극 내세워 전국적으로 교사를 개건하고 정보화시대의 요구가 철저히 반영된 다기능화된 교실들을 꾸리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짐

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좋은 교육조건과 환경에서 마음껏 배울수 있게 되였다.

교육혁명의 드세찬 열풍속에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12년제의무교육의 전면적실시를 위한 준비사업이 전부 완료되게 되였으며 2017년부터 공화국에서는 가장 우월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게 되였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전면적실시는 현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들을 원만히 키워낼수 있도록 중등일반교육체계를 보다 완비하고 새세기 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인재강국실현의 새로운 발전궤도에 당당히 들어섰음을 온 세상에 선포한 력사적인 계기로 되였다.

공화국의 12년제의무교육제도처럼 국가가 전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는 완전한 무료교육제, 도시를 비롯한 제한된 범위에서가 아니라 온 나라 전반에서 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는 없다.

지식의 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갱신속도가 나날이 빨라지고있는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세계적으로 중등일반교육을 중시하고 그 기간을 늘이는 방향으로 나가는것이 하나의 추세로 되고있다. 그러나 국가의 부담으로 교육기간을 늘이자면 너무도 엄청난 투자가 요구되는것으로 하여 아무 나라나 선뜻 실현하지 못하고있다.

하지만 공화국에서는 인재강국의 원대한 목표를 제기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한것으로 하여 세상사람들로부터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는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교육으로 되게 할데 대한 교육의 총적목표가 다시금 언급되고 새세기 교육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우리나라를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목표와 구체적인 과업들이 밝혀졌다.

최근에 교육부문에서는 교육혁명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교육사업을 부단히 혁신하고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힘있게 벌어져 인재강국의 래일을 더욱 앞당겨나가고있다.

특히 초등, 중등교육의 성과를 공고히 해나가며 시대가 요구하는 새형의 인재들을 원만히 키워낼수 있도록 고등교육부문의 수준을 새로운 높이에로 끌어올리기 위해 교육체계를 완비하는데 보다 큰 힘을 넣고있다.

보통교육부문에서는 해당 지역의 경제지리적특성에 맞게 기술고급중학교를 더 내오고 학생들의 개성에 따라 실천에서 써먹을수 있는 지식을 배울수 있도록 기술반을 합리적으로 내오는 사업이 진행되였으며 고등교육부문에서는 국가적인 인재수요에 따라 각급 대학들의 학과들을 정리하고 인재양성규모와 학제를 합리적으로 정하는것과 함께 대학들에서 련속교육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교육체계를 완비하는것과 함께 학생들에게 숭고한 정신과 높은 창조적능력을 키워줄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혁신하는 사업도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여기서는 평양교원대학과 모란봉제1중학교를 비롯한 앞선 교육단위들에서 개발한 수자화된 교수참고자료들을 해당 교육부문들에 일반화하여 전반적수준을 한층 높이며 유능한 교육자들과 함께 련관부문의 우수한 일군,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을 발동하여 교육부문의 교육강령을 높은 수준에서 작성하는것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업들이 계획되고 실천화되고있다.

보통교육부문에서는 학생들에게 다방면적인 지식과 함께 자립적으로,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갖추어주는 방향에서 교육방법을 발전시켜나가고있는데 특히 소학교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교수형식을 전환시키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여 소학교학생들의 창조적사고력과 응용능력, 교수내용의 인식적효과성을 높이고있다. 학생들의 소질과 개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매 학생들을 쓸모있는 인재로 키우며 풍부한 일반기초지식과 생산실천에서 써먹을수 있는 직업기술을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내용과 방법, 교수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 등이 완강하게 진행되고있다.

또한 고등교육부문에서는 중앙대학들과 지방대학들의 교육수준차이를 줄이며 중요대학들을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연구형대학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여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이미 꾸려진 학술중심들에서 학술일원화사업을 통해 교육강령, 교수요강, 최신과학기술자료, 새로운 교육방법 등을 시달 및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벌려나가는 한편 생물의학공학, 생물물리학, 외국어학술중심 등을 더 잘 꾸리는 사업도 전망성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전국적인 범위에서 고등교육부문의 교육행정사업을 장악, 관리 및 평가할수 있는 정보관리체계구축, 각 대학들의 교무행정 및 교수관리의 정보화완비 등 교육정보화사업도 적극 추진되고있다.

인재강국화의 높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속에 공화국의 교육수준과 환경은 앞으로 세계적수준에서 보다 개선되고 발전하게 될것으로 우리 인민들은 확신하고있다.

새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나가는데서 특별히 주목할만한것은 교육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인 교원대렬을 잘 꾸리고 그들의 수준과 역할을 높여나가는것이다.

후대교육사업을 농사에 비유하면 인재농사라고 말할수 있다.

인재농사의 담당자들은 다름아닌 교육자들이다.

뿌리가 든든해야 충실한 열매가 달릴수 있는것처럼 교원들이

충실한 열매가 달리게 하는 든든한 뿌리가 되여야 한다.

지난 기간 공화국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손길아래 교육혁명의 담당자인 교원들의 능력과 자질을 높이며 그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워주기 위한 사업에서 전례없는 변화들이 일어났다.

교육부문에서 몇년어간에 대혁명을 일으킬 높은 목표를 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교육혁명도 남이 한것을 답습하며 뒤따라가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단번에 교육이 발전된 나라들의 교육수준을 뛰여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교육부문에서 교원진영을 잘 꾸리고 그들의 교육자적자질을 끊임없이 높이는데 힘을 넣으며 교육환경을 현대교육발전추세의 요구에 맞게 꾸리도록 하시였다.

평양교원대학이 세계적인 교육자양성의 본보기대학으로 꾸려진 사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속에 평양교원대학은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본보기대학으로 희한하게 전변되였다.

평양교원대학에는 17가지 형태의 다기능교실들이 있는데 강의와 토론, 실험과 실습, 열람과 시험, 답사와 현실체험 등 여러 형태의 교수들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수 있고 해당 교실들은 자기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 정보화하여 모든 교구비품들을 일체화시킨것이 특징적이다.

평양교원대학을 본보기로 하여 전반적인 교육기관들에서 현대교육발전추세와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교수내용과 형식, 방법이 개선됨으로써 새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이 더 세차게 타오르게 되였으며 그속에서 학생들은 나라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인재들로 더욱 튼튼히 자라나게 되였다.

새세기 교육혁명의 열풍은 놀라운 전변을 가져오고있다.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공화국의 청년대학생들이 국제적인 프로그람경연무대들에서 어머니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슬기를 남김없이 떨치고있는것만 보아도 이를 잘 알수 있다.

세계 수십여개 나라에서 수만명의 대학생,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국제인터네트프로그람경연인 《코드쉐프》도전경연에서 공화국의 청년대학생들이 해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우승의 성과를 거두었다.

2018년 제27차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7개의 금메달을 쟁취한데 이어 2019년에 진행된 제28차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에서는 11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28개의 메달을 쟁취하고 나라별종합순위에서 단연 영예의 제1위를 차지함으로써 세계를 경탄시켰다. 2020년 7월에도 **김일성**종합대학의 대학생이 경연의 최고점수인 1 000점 만점을 받아 영예의 1위를 쟁취한 사실, 2019년 11월중순에 진행된 제44차 국제대학생프로그람 아시아심양지역경연에서 1개의 컵과 2개의 금상, 2개의 문제풀이속도상을 쟁취함으로써 국제대학생프로그

람 세계결승경연참가자격을 획득한 사실 등은 교육혁명과 더불어 자라나는 인재들의 지능수준, 지적잠재력이 어떤 높이에 있는가를 뚜렷이 증시해주고있다.

《이 세상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는 조선뿐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긴축정책과 공공부문 예산삭감에 매달리고있지만 조선에서는 교육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확대하고있다. 이렇듯 대담하고 혁신적인 조치는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지니신 **김정은**각하의 령도를 받는 조선에서만 취해질수 있다.》

《조선에서는 현재 교육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관심이 보다 높아지고 실질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있으며 교육기관들을 도와주는 기풍이 확립되고있다. 이 나라에서 실시하고있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사회의 일반문화기술수준을 높이고 사회와 경제의 지속적발전의 확고한 담보로, 뛰여난 인재들을 배출할수 있는 바탕으로 되고있다. 나어린 학생이 국제수학올림픽 3중금메달수상자로 된것을 두고 세계의 많은 교육자들은 조선이야말로 수재가 많은 나라, 교육수준이 매우 높은 나라이라고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세인들이 한결같이 경탄하듯이 새세기 교육혁명의 열풍속에서 세계를 당당히 앞서나가는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울 우리 인민의 꿈과 리상은 먼 미래가 아닌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와 인재강국의 래일

사회주의문명국은 인민들의 지향에 맞는 세계적인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이다.

이를 실현함에 있어서 내세운 목표의 하나가 바로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이다.

전체 인민을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지닌 유능한 실력가, 힘있는 창조자로 키워 우리 나라에 인재가 바다를 이루게 하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공화국에서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학졸업정도의 지식을 소유한 지식형근로자로,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전민무장화의 구호를 들고 전체 인민을 그 어떤 침략자도 물리칠수 있게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킨것처럼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인민을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다.

세계를 둘러보면 많은 나라들이 인재양성에 저마끔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힘을 넣고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기업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기업들의 리윤추구를 위한 도구에 불과할뿐이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이것은 조국과 인민,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펼치실수 있으며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하에서만 실현할수 있는 가장 인민적이고 혁신적이며 주체적인 교육전략, 인재전략이다.

공화국에서와 같이 광범한 인민대중이 인재로 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고 모든 사람들을 현대과학기술로 무장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이 취해지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공화국에서는 전체 인민이 과학기술지식을 일상적으로 보급받을수 있도록 부문별, 지역별과학기술보급기지들과 도와 시, 군의 도서관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누구나 앉은자리에서 인민대학습당이나 과학기술전당, 중앙과학기술통보사와 같은 단위들에 있는 과학기술자료들을 열람 및 리용할수 있는 정연한 체계가 세워졌다.

전 사회적으로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리고 잘 운영하는것을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고 부단히 개선발전시켜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공장, 어느 기업소를 찾으시여도 과학기술보급실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면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보급실운영에서 실질적인 은을 내도록 세심히 이끌어주고계신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시여 로동계급을 과학기술인재화하는데 우리 나라 공업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지름길이 있다고 하시면서 종업원들이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할수 있게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려줄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것을 비롯하여 과학기술보급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해 바치신 그이의 심혈과 로고를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다.

오늘날 전국각지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보급기지들이 훌륭히 꾸려지고 이곳에서 근로자들이 현대과학기술지식을 마음껏 습득할수 있게 되였다.

주체105(2016)년 새해 첫날 공화국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령마루로 비약해가는 주체조선의 기상을 온 세상에 과시하며 새세기 전민학습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일떠선 과학기술전당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

여 유서깊은 쑥섬에 멋쟁이건축물로 일떠선 과학기술전당은 과학자, 기술자들뿐 아니라 전체 인민이 마음껏 배울수 있는 배움의 전당, 선진과학기술보급의 중심지이다.

과학기술전당은 일반적인 열람이나 참관이 아니라 사람들이 콤퓨터망과 전시물들을 리용하여 기초 및 일반지식, 최신과학기술을 신속히 열람, 터득하고 직접적인 체험과 실제적인 조작과정을 통하여 착상과 탐구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고 실천에 적극 구현하는 능력을 키울수 있는 말그대로 지식경제시대의 배움의 전당이다.

과학기술전당은 건축학적으로 볼 때에도 조형예술적으로 손색이 없는 국보적인 멋쟁이건축물, 우리 나라 건축의 극치, 상징으로 되는 사회주의조선의 기념비적창조물이다.

세상에는 소문난 과학기술보급기지들이 있다고 하지만 규모와 내용에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라는 웅대한 구상실현에 이바지하는 이런 전당은 찾아볼수 없다.

우리 인민모두가 찾아와 마음껏 지식의 탑을 쌓을수 있는 과학기술전당이 일떠섬으로써 사람들은 높은 과학기술의 소유자가 되여 지식경제시대의 당당한 주인공들로 준비해나가려는 자신들의 강렬한 지향과 포부를 더욱 활짝 펼칠수 있게 되였다.

과학기술전당의 준공을 두고 세계의 언론들은 《과학기술을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내세우고있다는 상징》, 《과학기술

로 세계를 압도할 북의 의지표명》 등으로 신속히 보도하면서 과학기술전당은 과학기술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기관차로 내세우시고 과학으로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구상의 축도이며 과학으로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조선의 결심과 무궁무진한 힘의 일대 과시라고 일치하게 평하였다.

오늘날 과학기술전당은 그가 누구이든 미래행차표를 떼고 과학기술의 기관차에 오르게 하는 전민학습의 대전당으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적극 추동해나가는 강력한 거점으로 큰 은을 내고있다.

현시기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에서 커다란 은을 내고있는 것이 바로 원격교육체계의 급속한 성장과 발전이다.

세계적으로 원격교육의 역할이 비상히 높아지고있다.

공화국에서 원격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필요한 인재를 많이 키워내며 사람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빨리 높일수 있게 하는 우월하고 실리있는 일생교육수단으로 인정되여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다.

2020년 4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격교육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발포됨으로써 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한 법적토대가 더욱 공고히 다져지게 되였다.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교육이 원격교육과 결합되고 중요대학들에서의 통신교육이 원격교육으로 전환되여 보다 높은 수준에서 교육이 진행될수 있게 되였다.

공화국에서 원격교육은 2010년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에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자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였는데 지금은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건축대학, 평양기계대학을 비롯한 많은 대학들에서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2015년에 제1기졸업생들을 배출한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은 첫 개교식때 수십명에 불과하던 학생수가 오늘은 수만여명을 헤아리고있다.

지금은 이동통신망에 의한 원격교육체계가 확립되여 시공간의 제한이 없이 손전화기나 판형콤퓨터와 같은 정보말단장치로도 원격교육을 받을수 있게 되였으며 그 지망자수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평양기초식품공장의 경우 공장에 꾸려진 원격강의실을 통하여 하루일을 끝낸 종업원들이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진행하는 강의를 받고있는데 원격교육체계홈페지 《리상》을 통해서 매 학생들이 강의를 받은 정형과 강의리해정형, 시험응시정형을 비롯한 학습정형이 항목별로 장악되여 총화되는것으로 하여 학생들의 학습열의는 날로 높아지고있다.

지금에 와서 하루일을 끝내고 원격강의실에서 원격교육을 받으며 마음껏 지식의 나래를 펼쳐가고있는 근로자들의 행복

한 모습을 어디서나 찾아볼수 있다.

한명의 인재가 천금보다 귀중하고 과학기술인재의 보유가 국력의 척도로 되는 오늘날 세계에 도전하고 세계와 경쟁하며 세계를 앞서나가는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공격방식으로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고있는 인재의 대부대가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가는 곳마다에서 육성되고있다는것은 눈부신 민족의 장래를 예고해주는 참으로 희한한 현실이 아닐수 없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실천에서 뚜렷이 증명되고있다. 전문과학연구기지도 아닌 공장, 기업소들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학위학직소유자로, 놀라운 창의고안의 명수들로서 과학기술성과들을 척척 내놓고있는 사실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빛나는 실현과 더불어 온 나라에 과학기술열풍이 더욱 세차게 일어나고 사람들을 놀래우는 혁신적인 과학연구성과들이 수많이 이룩되여 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국방과학과 우주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의거하여 조국수호와 부강조국건설의 강위력한 보검들을 최첨단수준에서 개발하는 눈부신 과학기술성과들을 련이어 이룩하였다.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는 특대사변들을 련이어 안아온 국방과학과 우주과학부문의 성과에 화

답하여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의 결심을 혁명적신념으로 삼고 겹쌓이는 난관과 시련을 헤치면서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십년, 몇십년이 걸려야 한다는 첨단과학기술을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개발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대형보이라들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산소—무연미분탄착화 및 연소안정화기술을 도입하고 보이라와 타빈의 분산형조종체계를 실현함으로써 년간 수천t의 중유를 쓰지 않으면서 전력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하였으며 화력발전소들에 우리 식의 무중유착화기술을 확대도입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이밖에도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고정전화통신망의 IP화의 실현과 첨단수준의 다음세대통신망설비들의 개발도입, 정보보안의 과학화에 이바지하는 콤퓨터비루스방역프로그람의 확대도입, 우리식 조작체계의 보안핵심부 등으로 리용되는 블로크암호의 개발도입, 영농시기별농업생산조직과 지휘를 과학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되는 국가적인 농작물생육예보체계의 수립과 정상운영 등과 같은 첨단과학기술성과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내놓았다.

활발히 진행되고있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도 마찬가지이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누구라 할것없이 자기 부문 과학기술지식은 물론이고 여러 부문에 대한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

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 스스럼없이 참가하고있을뿐 아니라 가치있는 연구성과들로 생산정상화에 크게 기여하고있는것이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평범한 로동자들이 내놓은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들에 도입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적극 추동하였다.

참으로 전민이 과학기술의 인재가 되여 제힘으로 자기의 꿈과 리상을 꽃피워가는 오늘의 현실은 인재가 바다를 이룰 인재강국의 래일에 대한 확신을 더욱 뚜렷이 해주고있다.

고맙습니다!

병을 모르고 건강하게 살고싶은것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소원하고 리상하던것이다.

공화국의 력사에는 인민에 대한 한없이 뜨거운 사랑을 구현하시여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사회주의 보건제도를 수립하여주시고 인민들 누구나가 무상치료제의 혜택속에서 무병장수를 누리도록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세계가 뜨겁게 새겨져있다.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을 그대로 체현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체 인민이 무병무탈하여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우실 숭고한 념원을 안으시고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세상에서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보건제도를 튼튼히 고수하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사실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압살책동으로 하여 지난 시기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는데서도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하지만 공화국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각별한 관심과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되는것이 많지만

인민들에게 더 좋은 의료상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제일로 중시되여 현대적인 병원들이 일떠서고 제약 및 의료기구공장들을 개건하는 사업이 그 어느때보다 줄기차게 벌어졌다.

평양의 문수지구에는 《사회주의의 해설문거리》와도 같은 병원촌거리가 있다. 불과 1㎞도 안되는 구간에 새 생명의 출생으로부터 어린이들과 녀성들,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한 각 분야의 현대적인 병원들이 종합체를 이루고있다.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옥류아동병원, 류경치과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을 비롯한 현대적인 병원들은 하나같이 세계적수준의 현대적인 첨단설비들을 그쯘히 갖추고 인민들의 치료와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2012년에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가 녀성들의 유선질병들에 대한 예방과 치료, 과학연구사업을 전문적으로 진행할수있는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의료봉사기지, 과학연구기지로 일떠서 준공되였다.

여기에는 세계적으로 의료설비제작기술에서 제일이라고 인정된 CT와 다목적렌트겐, 유선촬영기 그리고 유관내시경, 초음파진단설비를 비롯하여 값비싼 수많은 최신식진단설비들과 첨단의료설비들, 환자치료에 필요한 모든것이 종합적으로 다 갖추어져있다.

유선종양연구소가 운영됨으로써 유선암을 조기적발하기 위한 정상적인 검진체계를 세워 녀성들의 유선암을 제때에 치

료할수 있게 되였다.

유선종양연구소가 문을 연 때로부터 지난 10년간 전국의 수많은 녀성들이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유선증과 유선암을 비롯하여 부인병치료를 받았는데 공화국의 녀성들속에서 호평이 높다.

2013년에 완공된 옥류아동병원과 류경치과병원도 마찬가지이다.

몸소 건설현장에까지 나오시여 품들여 지도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뜨겁게 어려있는 옥류아동병원은 CT설비와 MRI설비를 비롯한 최신식의료설비들을 갖춘 각종 치료 및 처치실, 수술실, 입원실들은 물론 입원한 어린이들이 공부할 교실들과 놀이장, 휴식장들로 특색있게 꾸려진 세상에 둘도 없는 아동의료봉사기지이다.

병원에 입원해있는 기간에도 수업을 중단함이 없이 받을수 있어 어린이들이 치료를 받으면서도 학교과정안을 집행하는데 자그마한 불편도 없게 되여있으며 우유를 실은 차가 병원에까지 찾아와 어린이들에게 매일 차례지는 우유를 공급해준다.

옥류아동병원을 돌아본 외국인들은 한결같이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나는 아직까지 살면서 이렇게 훌륭한 병원이 있다는것을 본적도 들은적도 없다. 귀국에 와서 희한한 아동병원을 보게 되였다. 병원의 설계를 비롯한 모든 요소들이 상

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은 수준에서 창조되였다. 병원건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진행되였다고 하는데 그분의 건축학적안목이 뛰여나다. 병원이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게 꾸려졌다고 본다. 더우기 병원에 놀이장과 휴식장 지어 학교 교실까지 꾸려졌는데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착상이며 자기 인민들과 어린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귀국의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 아니시고서는 이러한 위대한 창조물을 구상할수 없을것이다.》

《이곳을 참관하면서 큰 감명을 받았다. 이곳은 아동병원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궁전이다. 병원의 모든 환경이 동심세계에 맞게 재미있게, 훌륭하게 꾸려졌다. 이처럼 값비싼 의료설비들을 아이들을 위한 병원에 설치하도록 한것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되였다.》

《옥류아동병원이 첨단기술설비들로 장비되여있는데 대하여 크게 놀랐다. 병원의 모든 첨단의료설비들이 평범한 로동자들의 자식들을 위해 리용되고있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이것은 믿을수밖에 없는 엄연한 현실이였다.》

…

종합적인 치과치료기지로 솟아난 류경치과병원도 치과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물질기술적조건들이 보건의학적요구에 맞게 갖추어져있으며 건축물의 조형화, 예술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이다.

2016년에는 류경안과종합병원이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의료봉사기지로 훌륭히 일떠섰다.

류경안과종합병원은 들어서면서 마주보이는 외래병동의 앞면을 사람의 눈으로 생동하게 형상하고 입원실병동외벽에는 시력검사표를 붙임으로써 건물외형만 보고서도 안과전문병원이라는것을 인차 알수 있어 누구나 쉬이 눈길을 떼지 못한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빛내이기 위한 격동적인 철야진군의 날과 달속에 일떠선 류경안과종합병원, 그것은 정녕 절세위인의 인민사랑이 낳은 고귀한 결정체이다.

오늘 류경안과종합병원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 누구나가 첨단진단설비에 의한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자기의 기호에 맞는 안경까지 봉사받으며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받아안고있다.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이 사회주의보건의 혜택속에서 선진적인 의료봉사를 마음껏 받으며 무병무탈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웅심깊은 사랑의 세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있다.

모든것이 어려운 속에서도 보건부문을 추켜세우는 사업은 조건과 환경이 어떠하든 국가적으로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할 중대사로 되고있다.

수도뿐 아니라 지방의 병원들도 현대적으로 새롭게 일신되

고있는데 삼지연시인민병원이 지방인민병원의 본보기로 훌륭히 일떠선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의 보건을 가장 인민적이며 선진적인 보건, 세계적수준의 보건으로 되게 하자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이 보다 강화되는 속에 현대적인 보건산소공장들이 일떠서고 인민들의 치료사업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묘향산의료기구공장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관심과 지도속에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공장, 구실을 바로 하는 공장으로 훌륭하게 개건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성제약종합공장을 비롯하여 제약공장들이 국제적기준에 부합되고 나라의 제약공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현대적인 공장으로 변모되였으며 의약품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각지의 제약공장들에서도 현대화가 진척되고있다.

나라의 보건사업을 발전시키는데서 특별히 중시되는것이 의료봉사체계를 발전하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개선시켜나가는것이다.

공화국에서는 수도의 중앙병원들로부터 농촌의 말단의료봉사기지들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모든 치료예방기관들과 위생방역기관들을 보건위생학적요구와 새세기의 현대적미감에 맞게 꾸리며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보다 개선강화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도입된 때로부터 지난 10여년간 조국의 최북단으로부터 외진 바다가마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근로자들이 첨단의료봉사의 혜택을 받았으며 선진적인 치료방법들이 전국의 치료예방기관들에 널리 보급되였다고 한다.

평양산원, 평양의학대학병원, 김만유병원, 고려의학종합병원, 옥류아동병원 등의 유능한 의료일군들이 전국각지 병원들에서 긴급하게 제기되는 여러가지 급성질병과 난치성질병환자들에 대한 협의를 원만히 보장하여 그들의 소생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뿐만아니라 각 도, 시, 군인민병원의 의료일군들도 많은 근로자들이 첨단과학기술에 의거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고있다.

이런 성과에 토대하여 지난해에만도 보건부문에서는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사이 병원들이 정보기술에 의거하여 호상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환자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 등을 진행할수 있는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리인민병원을 비롯한 말단치료예방단위들에로 확대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여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인민들에게 훌륭한 의료봉사를 제공하는 사업에서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보다 개선강화됨으로써 선진적인 치료봉사를 받으며 건강하고 복된 삶을 누리려는 인민들의 꿈은 현실로 하나하나 실현되고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보건을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인민보건으로 발전시켜 인민들에게 더 좋은 의료상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제시되였다.

지금 공화국의 보건부문에서는 치료예방기관들과 제약 및 의료기구공장들을 개건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보건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 어떤 세계적인 보건위기에도 대처할수 있는 방역기반을 튼튼히 축성하기 위한 사업이 보다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세상에서 제일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의 본태를 살려 우리 인민들 누구나가 의료봉사를 받으며 건강하게 살게 하시려는 절세위인의 사랑이 커만 갈수록 천만인민모두는 한없는 감격에 가슴을 적시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고맙습니다!》라고 격정을 터치고있다.

새 문명의 별천지들마다에서

강국의 꿈과 리상을 꽃피워가는 우리 인민의 긍지와 보람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문명국건설과 더불어 새 문명의 창조자, 향유자가 되여 사회주의만복을 누려나가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활짝 열어놓아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는 속에 사회주의문명의 상징으로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은 얼마나 많은가.

릉라인민유원지,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 세계적수준으로 꾸려진 중앙동물원,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새 문명의 별천지와 더불어 태여난 스키바람, 승마바람, 온천문화와 같은 새로운 시대어들은 남들이 부러워할 눈부신 문명의 래일을 마중해가는 우리 인민의 행복의 대명사로 이 땅우에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다른 나라 같으면 특권층들이나 향유할 훌륭한 봉사기지

들에서 공화국의 평범한 인민들이 마음껏 사회주의문명을 향유해가고있다.

절세위인의 인민사랑과 위민헌신의 고귀한 결정체로 세상에 태여난 사회주의문명의 상징과도 같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인 인민의 문화정서기지들마다에서 울려퍼지는 기쁨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그대로 강국의 꿈과 리상을 꽃피워가는 공화국인민들의 행복상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스키장으로 일떠선 마식령스키장.

수수천년 산새소리, 물소리만이 울리던 마식령의 천연수림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대규모의 마식령스키장이 1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문명의 상징으로 솟아올랐다.

스키주로의 수와 총연장길이에 있어서 세계적이며 자연과 친숙하면서도 산골맛이 나는 호텔과 스키봉사 및 숙소건물들, 직승기착륙장 등이 손색없이 꾸려져 체육과 관광, 휴식에 필요한 건물들을 완벽하면서도 훌륭하게 갖추고있는 마식령스키장은 오늘날 우리 인민들속에서 그 명성이 자자하다.

마식령스키장의 수려한 산발들에 줄줄이 뻗어내린 스키주로들을 따라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마음껏 스키운동을 하는 행복넘친 광경은 마치 한폭의 그림과도 같다.

사계절 인민들의 웃음꽃이 피여나는 문수물놀이장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문명의 별천지이다.

시원하게 트인 드넓은 공간에 수십개의 수조와 물미끄럼대, 체육시설이 그쯘히 갖추어진 야외물놀이장과 파도수조, 초음파수조 그리고 여러가지 한증방과 운동실을 비롯하여 물놀이와 몸단련에 좋은 각종 시설들이 들어앉은 실내물놀이장, 실내체육관…

평양의 자랑을 더해주며 일떠선 문수물놀이장은 인민을 위함이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것이다.

문수지구에 종합적이고 다기능적인 물놀이장을 마련해주시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물놀이장형성안을 113건이나 지도하여주시였으며 여러 차례나 건설장을 찾으시여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

문수물놀이장은 야외 및 실내물놀이장, 각종 체육시설로 이루어진 특색있으면서도 규모가 대단히 큰 세계적수준의 종합적인 물놀이장이다.

당시 어느한 나라에서 새로 규모가 크게 건설하였다고 하는 종합물놀이장에도 물미끄럼대는 불과 5개였지만 우리 인민들을 위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물미끄럼대들을 모두 설치해주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은정속에 문수물놀이장에는 무려 14개의 현대적인 물미끄럼대들이 칠색무지개처럼 뻗어내리게 되였다.

이렇듯 희한한 물놀이장에서 근로하는 인민들이 세상에 부

러운것 없이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향유하고있다.

새 문명의 창조와 더불어 평양에 또 하나의 자랑으로 태여난 미림승마구락부는 또 어떠한가.

세상에는 제나름의 멋을 자랑하는 승마운동기지들이 많지만 우리 미림승마구락부처럼 평범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을 위한 대중승마봉사기지는 그 어디에도 없을것이다.

시원하게 뻗은 주로와 하나하나의 건물들에도 그리고 관람대의 란간이며 지어 도로에 깔아놓은 청석에 이르기까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체취가 뜨겁게 깃들어있다.

2013년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안겨주는 선물로 마련된 미림승마구락부는 《승마바람》이라는 새로운 시대어와 함께 사람들속에서 호평이 자자하다.

몇해전부터 봄철과 가을철에 미림승마구락부에서는 사람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승마경기가 진행되고있는데 그 인기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올해에만도 설명절과 3.8국제부녀절을 맞으며 특색있는 승마경기가 진행되였는데 날이 갈수록 보다 세련되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승마기술이 남김없이 발휘되여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숲이 아름다워 미림이라 불리워온 이곳에 로동당시대와 더불어 사회주의문명을 한껏 누려가는 인민의 웃음소리,

행복의 말발굽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다 안겨주시려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떠받들려 또 하나의 새로운 문명이 양덕땅에 펼쳐지게 되였다.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 세계적수준의 온천문화휴양지로 꾸려진 양덕군 온정리.

이 땅우에 일떠서는 모든 창조물들이 다 그러하듯이 양덕온천문화휴양지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이 펼친 또 하나의 별천지이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온천욕과 스키타기, 말타기를 함께 할수 있는 휴양지의 개발을 발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직접 그 일대를 돌아보시며 온천용출량과 온도, 주변환경을 일일이 료해하시고 비내리는 궂은날 이른 새벽 건설장을 찾고 또 찾으시며 세상에 없는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거점을 일떠세워주시기 위해 로고를 바치시였다.

절세위인의 위민헌신의 숭고한 사랑의 손길에 떠받들려 불과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온천문화휴양지가 국가의 온천문화를 대표할수 있는 높은 수준에서 완공되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선 양덕온천문화휴양지는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는 종합적인 온천치료봉사기지, 다기능화된 복합체육문화휴식기지이다.

실내온천장과 야외온천장, 스키장, 승마공원, 려관을 비롯하여 치료 및 료양구역들과 체육문화기지들, 편의봉사시설들, 소층, 다층살림집들 등 모든 구성요소의 실용성, 호상결합성, 조형예술화를 완벽하게 실현한 양덕온천문화휴양지가 웅장하게 건설됨으로써 사회주의문명창조의 새로운 경지가 개척되였다.

양덕의 산간벽촌에 펼쳐진 세계적인 온천문화휴양지, 우리식의 독특한 온천문화는 만난시련속에서도 우리 인민에게 새로운 문명을 끊임없이 안겨주려는 우리 당의 위대한 인민관과 령도가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무궁무진한 발전잠재력의 힘있는 과시로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몸소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의 완공은 가장 정확한 령도력과 가장 위대한 향도력으로 막아서는 온갖 도전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조선로동당만이 안아올수 있는 빛나는 결실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뜨거운 자욱우에 솟아오른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서는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향유하며 터치는 복받은 인민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스키를 탄 다음 온천에 몸을 담그고 온탕을

하는것은 최고급의 락으로 간주되고있다. 때문에 온천문화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특권계층들만이 《생활의 윤활유》라고 하면서 누리는 고급한 문명으로 일러왔다.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이 다 부러워할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심깊은 사랑속에 태여난 온천문화휴양지에서는 오늘날 최상급의 온천문화를 향유하는 근로자들의 행복넘친 모습이 아름다운 화폭으로 펼쳐지고있다.

사회주의문명건설과 함께 태여난 문명바람은 이뿐만이 아니다.

릉라도에 솟아난 릉라곱등어관에 가면 바다먼 수도의 한복판에서 평범한 인민들이 희한한 곱등어재주를 구경하며 웃고 떠드는 장관을 볼수 있고 현대적으로 개건된 중앙동물원에 가면 발을 들여놓는 첫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희열과 랑만에 넘쳐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다.

일일이 보기만 하자 해도 가슴이 뻐근하고 더없는 긍지로 가슴부풀게 하는 이렇듯 희한한 현실과 놀라운 변화를 두고 세계언론계는 특대소식으로 전하고있다.

온갖 봉쇄와 제재로 하여 어려운것이 많은 나라에서 부유한 선진국들에서나 볼수 있는 현대적인 문화정서기지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각계각층의 평범한 근로자들이 황홀

한 문명향유의 주인으로 되였으니 어찌 놀라지 않을수 있겠는가.

유럽의 한 국회의원은 평양방문회견기에서 《나는 조선에 가보고 완전히 감동되였다. 그것은 서방이 말하는 나라가 아니기때문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방문할것을 권고한다. 현실을 보고 그다음에 말해야 한다.》고 하였다.

불과 10년동안에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앞에서 우리 인민모두는 마침내 꿈이 이루어진다는 격세지감에 격정을 금치 못한다.

세상에 부럼없는 사회주의만복의 주인으로 된다는 자부심으로 천만인민의 가슴가슴은 세차게 높뛰고있다. 세계의 모든 문명하고 부러운 생활이 우리 인민들모두의것이 되고 더 멋있고 광휘로운것이 평범한 우리 인민의 례사로운 생활이 되는 휘황한 래일에 대한 인민의 열망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렬해지고있다.

세상에 부럼없는 삶의 주인공들

예로부터 설음중에 제일 큰 설음은 고아의 설음이라고 하였다.

고아의 설음, 그것은 부모없는 설음, 따뜻한 혈육의 정에 대한 그리움이다.

오늘 세계 일부 나라들에서 육아문제를 내세우면서 고아들을 돌봐준다고는 하고있지만 친혈육의 정만은 누구도 대신해줄수도, 부어줄수도 없는 불가피한것으로 여기고있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부모없는 아이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친어버이의 사랑속에서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로 되여 만사람의 부러움을 독차지하고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10년간 이 땅우에 꽃펴난 절세위인의 인민사랑의 새 전설들과 더불어 부모없는 아이들이 고아의 설음이란 말조차 모르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행운아들로 더 활짝 피여났다.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원아들의 궁전, 행복의 보금자리로 솟아난 평양애육원, 육아원과 더불어 이 땅에 펼쳐진 미래사랑의 화폭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2014년은 원아들에게 있어서 친혈육의 정, 친부모의 정보

다 더 따뜻한 원수님의 정과 사랑을 가슴가득 받아안게 된 잊지 못할 해였다.

주체103(2014)년 2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애육원과 육아원을 찾으시여 원아들에게 친어버이의 사랑을 안겨주신 이야기는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부모없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며 원아들에게 주실수 있는 사랑을 다 부어주고싶으신 심정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날 평양시의 육아원과 애육원을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새로 요란하게 지어야 하겠다고, 우리는 부모없는 아이들에게 생활환경과 교육교양조건을 비롯한 모든것이 원만하게 갖추어진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집을 꾸려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세상을 둘러보면 어느 나라에나 부모없는 아이들이 있고 그런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도 취해지고있다.

하지만 나라의 령도자가 친어버이의 뜨거운 정을 안고 원아들의 생활환경과 교육교양조건을 가장 훌륭하게 마련해주기 위해 마음쓰고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고있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날의 현지지도소식으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못했던 평양애육원과 육아원의 원아들이 온 나라, 온 세계의 관심을 모으게 되였다.

그후 국제아동절을 맞는 6월 1일 또다시 평양애육원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저녁을 먹는 원아들을 한명한명 다심히 보살펴주시며 다음해 6.1절은 새로 지은 애육원에서 쇠자는 사랑의 약속까지 남기시였다.

원아들의 친어버이가 되시여 온갖 사랑을 다 부어주시는 그날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TV화면으로 뵈오며 온 나라 인민들은 크나큰 격정으로 눈시울을 적시였다.

태양보다 더 따뜻한 친어버이의 사랑의 손길에 떠받들려 그후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의 명당자리에 평양애육원과 육아원이 불과 몇달사이에 훌륭하게 일떠섰다.

2015년 1월 1일 평양애육원과 육아원을 또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을 그리워하는 원아들과 양력설을 함께 쇠려고 신년사를 한 다음 제일먼저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에 왔다고 하시며 원아들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아낌없이 바치시며 육친의 사랑을 가득 안겨주시였다.

부모없는 아이들의 설음과 괴로움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아들은 정으로 키워야 한다고, 원아들이 제일 그리워하는것은 정이라고 하시며 그들에게 친부모의 정을 부어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손길아래 이후 몇해사이에 전국의 각 도들마다 애육원과 육아원뿐 아니라 초등, 중등학원들이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다.

그 나날에 강원땅의 원아들이 자그마한 손으로 자기들의 보금자리의 준공테프를 끊고 기쁨에 넘쳐있는 감동깊은 화폭도 펼쳐졌다.

TV와 선전물들을 통해서 다 알려진것처럼 오늘날 평양애육원과 육아원은 물론 보육조건과 생활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진 전국의 애육원, 육아원, 초등, 중등학원들마다에서는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속에 강국의 믿음직한 미래들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원아들의 행복의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드는 리상사회, 사회주의조선에서만 펼쳐질수 있는것이다.

하기에 원아들의 행복상을 직접 목격한 외국인들은 한결같이 조선의 원아들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천사들이라고 부러움과 경탄을 아낌없이 터놓은것 아니겠는가.

유럽의 한 인사는 《놀랄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조선의 평양에 고아들을 위한 육아원, 애육원이 훌륭하게 일떠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모든것이 이처럼 최상최고의 수준인줄은 미처 몰랐다. 우리 나라에서는 왕족들만이 누릴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다. 유럽을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들에도 고아들을 위한 복지원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곳은 꿈에서도 그려보지 못한것이다.

평양뿐 아니라 지방에도 육아원, 애육원들이 훌륭히 꾸려져

있고 국가적인 관심과 전 인민적인 보살핌속에 부모잃은 아이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무럭무럭 자라고있다니 조선은 정말 아이들의 왕국, 아이들의 천국이다.》라고 하였다.

원아들의 밝은 미래를 지켜주시고 활짝 꽃피워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품에 안겨 행복만을 알며 자라나고있는 우리 아이들의 그 밝은 모습은 그대로 휘황찬란한 내 조국의 모습인것이다.

김정은시대에 행복의 단상에 오른 행복자들은 비단 원아들뿐이 아니다.

2015년 8월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서는 원아들의 궁전과 나란히 민족의 향취풍기는 합각지붕의 조선식건축물로 특색있게 솟아난 평양양로원에 년로자들이 이사하는 감동깊은 화폭이 펼쳐졌다.

나이가 들면 물좋고 공기가 좋으며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싶어하는것이 늙은이들의 소망이라 한다.

평양양로원은 대동강을 옆에 끼고 수림이 우거져있어 온갖 새들이 지저귀는 그야말로 명당자리이다. 공기좋고 경치좋으며 소음도 없어 늙은이들이 여생을 편안하고 즐겁게 보내기에는 아주 리상적인 장소이다.

이런 명당자리에 들어앉은 궁궐같은 보금자리로 이사하는 보양생들의 행복에 겨운 모습, 고마움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은 정녕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고 또

지어낼수도 없는 감동적인 화폭이였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한 양로원의 실태를 보고받으시고 양로원을 새세기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건물로 새로 일떠세울것을 결심하시였다. 그리고 명절날의 휴식도 뒤로 미루시고 양로원건설장에 나오시여 시공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에 따라 평양양로원은 세상에 둘도 없는 희한한 건축물, 로동당만세소리가 더 높이, 더 힘차게 울려퍼지는 사랑의 보금자리로 훌륭히 완공되게 되였던것이다.

평양양로원에는 늙은이들의 체질적 및 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생활조직과 정서생활, 몸단련 등을 원만히 할수 있는 시설들이 충분히 갖추어지고 보양생들이 가정적분위기속에서 생활할수 있는 침실, 식당은 물론 적당한 운동과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할수 있도록 운동실, 오락실, 도서실, 영화관도 손색없이 꾸려져있다. 보양생들의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그에 알맞는 대책을 세울수 있는 치료실도 있고 목욕탕, 미용실, 세탁소를 비롯한 편의시설들도 편리하게 꾸려졌으며 그들이 산보도 하고 야외식사도 할수 있게 내정도 특색있게 조성되여있다.

로인들이 밥맛이 날 정도로 일도 하며 장수할수 있게 수경온실도 건설해놓았고 터밭도 마련해주어 자기 손으로 남새도 가꾸고 꽃관목도 가꿀수 있게 해주었다.

온갖 생활조건이 다 갖추어진 양로원에서 여생의 락을 마음껏 누려가는 보양생들의 기쁨과 행복을 담아싣고 《세월이야 가보라지》의 노래소리가 끊임없이 울려나오고있다. 그것은 그대로 사회주의에 대한 다함없는 찬가이다.

평양양로원이 일떠선 후 공화국에서는 몇년사이에 나라의 곳곳마다에 년로자들을 위한 양로원들이 새로 일떠섰으며 휴식과 치료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행복의 집에 보금자리를 편 년로자들은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고 여생을 즐겁게 보내고있다.

다른 나라 같으면 돌봐줄 혈육이 없어 설음과 천대속에서 시들어가지 않으면 안될 년로자들이 생의 활력에 넘쳐 온갖 락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꿈같은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것이다.

어찌 보양생들뿐이겠는가.

가장 우월한 년로자우대정책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있는 공화국에서는 년로자들을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친 혁명선배로, 사회와 가정의 웃사람으로 내세우는것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실생활에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설날을 비롯한 명절날이면 상업봉사기관들에서 늙은이들을 위해 특별봉사를 하고있다. 이중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싸운 전쟁로병들, 조국번영을 위해

창조의 구슬땀을 바친 공로있는 로인들이 사회적으로 특별한 존경과 우대를 받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선배들인 전쟁로병들은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하시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을 맞으며 전국의 전쟁로병대표들을 평양에 불러주시였고 로병들을 조국을 지킨 은인, 민족의 장한 영웅, 진정한 애국자라는 최상의 믿음과 영광을 안겨주시며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였다.

고독과 비관, 절망과 분노 등 다른 나라 로인들의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늘을 공화국의 년로자들에게서는 찾아볼수 없다. 그들은 누구나 생의 희열과 락관, 생기와 활력에 넘쳐있다.

해마다 국제로인의 날이면 공화국에서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군 한다. 조국과 후대들을 위하여 애국충정을 다해온 년로자들을 축하해주는 사업이 전국각지에서 진행된다.

정녕 사회주의 내 조국의 품속에서 년로자들은 몸은 비록 인생의 황혼기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청춘에 살며 활력에 넘쳐있다.

하기에 온 나라 년로자들은 자기들의 행복한 생활이 그대로 담긴 《세월이야 가보라지》노래를 즐겨 부르고있다.

세월이야 가보라지!

이 말속에는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어가도 아쉬움없이 활

기와 열정에 넘쳐 청춘으로 살고있는 사람들의 환희가 어리여있다. 공화국의 고마운 인민적시책들, 명당자리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인민을 위한 문화휴식터들과 살림집들에서 마음껏 복락을 누려가는데 대한 인민들의 한없는 고마움이 슴배여있다. 절세위인을 모시여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슬기로운 인민으로 된 긍지가 력력히 깃들어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세월이 감에 따라 늙어가는것이 너무도 안타까워 가는 세월을 붙잡고싶어했다. 그래서 심심산골에 있는 신기한 약수를 먹고 늙은이가 젊은이로 되였다는 옛이야기도 만들어냈고 온갖 잡병을 고치고 젊음을 되찾아 오래오래 살려고 산삼이나 불로초를 먹는것도 다 세월을 붙잡고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반영된것이라 하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겠다시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시려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계시여 오늘 공화국에서는 인민들이 오랜 세월 간직해온 꿈과 리상이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사랑과 정으로 아름다운 나라

오늘 우리 인민은 사상초유의 난관을 이겨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해 기세충천하여 전진하고 있다.

세상이 다 아는것처럼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지난 10년간은 남들 같으면 열백번도 무너지고도 남았을 최악의 역경의 련속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사소한 동요나 혼란은 고사하고 사람들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며 고상한 도덕과 아름다운 사랑으로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의 주인들로 보람찬 삶을 누려가고있다.

천만이 고결한 도덕의리심과 후더운 인정미, 불같은 헌신성을 지니고 당과 조국,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나라,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서로 더욱 위해주고 정을 두터이 하는 기풍이 공기처럼 흐르는 나라.

누구나 바랐지만 누구도 이루지 못한 참다운 인간세계를 펼쳐가고있는 우리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사람들은 경탄과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장구한 세월 인간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살아나가는 행복한 나라를 《지상천국》이라 부르며 그러한 세상에서 살기를 소원해왔다.

어느한 책의 첫장에는 이렇게 씌여져있다.

《천국을 찾아 헤매이다 돌아와보니 집이 천국이로다.》

살과 피를 나눈 부모들과 자식들이 함께 사는 집.

이 아늑한 공간에는 남에 대한 미움도, 권력다툼도, 숨길것도 없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과 심신이 가장 안정되고 편한 곳으로서의 집을 《천국》이라 하였던것같다.

이렇게 볼 때 인류의 세기적념원이 현실로 꽃핀 나라가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온 나라 인민이 친형제가 되여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 우리 집이다.

세상에는 나라가 많지만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전체 인민이 친혈육의 정을 나누면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사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다.

인민의 행복이 꽃펴나는 우리 사회의 참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한집안식솔처럼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살아나가는데서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언제인가 남조선의 어느한 신문은 지난 시기 반공을 일삼았던 인사가 공화국을 방문한 소감에 대해 이렇게 전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좋은 느낌으로 와닿는 아름다운 국명, 내게는 환상의 조국이다. 나의 눈에 비낀 북은

사회전체가 한가족이였다.》

옳은 말이다.

우리 인민들은 귀중한 조국을 사회주의 우리 집이라고 부른다.

오늘날 우리 인민에게는 부족한것도 적지 않고 요구되는것 또한 많다. 그러나 인민들에게는 그 이상의것 즉 사회적관계속에서의 인간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자본주의사회에 비할바없이 깨끗하고 순결하게 자리잡고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에 다 담겨져있는것처럼 그것은 자신을 바쳐 사회와 집단을 위하는 집단주의정신이다.

부모없는 자식들을 스스로 데려다 키우는 처녀들도 있고 어머니들도 있으며 영예군인들에게 시집, 장가를 가는 청년들도 있다. 자식없는 늙은이들을 친부모처럼 모시며 보살펴주는 젊은이들과 물에 빠진 아이들을 건져내거나 불타는 집에 뛰여들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한몸을 아낌없이 내대는 미거는 일상사로 되고있다.

남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서슴없이 던지는것, 이것은 인간사랑과 화목의 최고발현이 아닐수 없다. 이런 덕행이 선호되는 사회가 개인주의에 물젖어 《너 아니면 나》라는 가치관이 판을 치는 사회와 대비조차 할수없이 고상하고 위대하다는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동지를 위하고 집단을 위한것이 체질화된 사람들이기에 4박5일동안 붕락된 막장안에 갇힌 탄부들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순간에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을 움직일수 있는 마지막순간까지 발파구멍을 뚫으며 작업반계획을 수행한 사실이 이를 립증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처녀어머니라고 불러주신 강선땅의 장정화는 18살에 7명의 부모없는 어린이들의 어머니가 되였다. 꿈많은 처녀시절에 손에 물기가 마를새없이 아이들의 시중을 들어주고 공부를 시키느라 언제 한번 동무들과 즐겁게 놀아보지도 못하였다고 한다.

7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여준 신천땅의 한 청년, 사람들속에서 총각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는 신천군 복우고급중학교 청년동맹, 소년단책임지도원인 권순남이다. 총각의 몸으로 부모없는 아이들의 친아버지가 되여 혈육의 정을 바쳐가는 그의 심장속에는 례사로운 인정의 세계를 초월하는 뜨거운것이 가득차있다.

그것은 고결한 인간애이며 자신을 청년일군으로 키워주고 청년미풍선구자로 내세워준 어머니당의 믿음에 보답할 충성의 한마음이다.

온갖 부정의와 탐욕으로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류의 미래를 병들게 하려는 제국주의반동들이 감히 우리 청년들까지 변질시키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 오늘날 권순남과 같은 미

덕과 미풍의 선구자들이 끊임없이 태여나고있는것은 썩어빠진 자본주의의 사상문화를 압도하는 사회주의도덕과 문화의 자랑찬 승리로 된다.

결혼하여 한생 갖추고 살아야 할 가정재산항목이 첫째는 사랑이고 둘째는 웃음이며 셋째는 화목이라고 하는 공화국의 청년들이 지닌 결혼관, 행복관을 놓고서도 사랑과 덕을 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알수 있다.

재미동포 신은미가 몇해전 대구에서 강연을 하였는데 그 한 대목이 흥미롭다.

《난 보수적인 집안에서 태여난 보수적시각의 재미교포이다. 북에 가보기 전에는 뿔달린 도깨비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남편을 따라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시작한 40일 관광기간 민족정서의 공유가 느껴지고 오히려 따뜻한 인간성엔 가슴이 뭉클했다. … 내가 쓴 글을 인터네트에 련재했더니 〈종북〉, 〈빨갱이〉라는 글들이 올랐다. 북에 가서 민족애, 인간성을 느낀게 종북이라면 나는 기꺼이 종북이 되겠다.》

공화국방문의 나날에 그 녀성이 갖고있던 관심은 북이 얼마나 잘살고 못살고 하는것이 아니였다. 잘살고 못사는것은 언제든지 바뀔수 있다. 문제는 북과 남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더불어 살수 있는가 하는 민족성확인이였다.

그러나 공화국인민들에게 그 이상의 크나큰 인간세상의 보물이 있다는것을 그 녀성은 발견한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고 한 그 동포녀성의 려행기는 자기 삶에 대한 반성문이고 공화국에 대하여 체질적인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던지는 성토문이고 공화국에 대한 안내서였다.

성정이 순박하고 량심이 깨끗하며 남을 속일줄 모르는 고지식함과 맡은 일에 대한 성실성, 자기 위업에 대한 굳센 의지와 신념은 공화국인민들만의 자산이고 정신적기질이다.

공화국을 한번이라도 다녀간 사람들은 누구나 바라고있으나 누구도 이루지 못하는 집단주의사회가 바로 인간의 리상사회이고 만인이 세기를 두고 바라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것이다.

《너 아니면 나》라는 가치관이 지배하고 남을 경계하며 딛고 올라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약육강식의 사회에서는 이런 경이적인 현실을 상상조차 할수 없다.

《…근대인들의 성공의 목표는 더 론의할 여지없이 권세와 부귀영화이다. 이 목표에로의 길을 어떻게 밟는가, 그 성공의 열매를 어떻게 당겨오는가 하는것은 각자나름의 잠재능력에 기인된다. 바로 그 잠재능력의 기초는 〈너를 눌러야 내가 산다.〉는 생존의식이다.》

부르죠아사회정치학이 설교하는 이 랭혹한 론리는 모든 인간관계가 오직 먹이사슬로 엮어진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인의 리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의 도덕이 극구 찬양되는 자본주의사회의 진면모를 낱낱이 드러내보이고있다.

우리 사회에 공기처럼 흐르는 따뜻한 덕과 정이야말로 억년 굳건한 단결의 토양이며 아름다운 우리식 사회주의의 본태이다.

하다면 우리식 사회주의의 본태는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것인가.

그것은 바로 조선로동당의 이민위천, 위민헌신의 리념이다.

이민위천, 위민헌신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빛나게 구현하고 있는 조선로동당의 정치철학, 정치리념이다. 인민을 그토록 신성하게 떠받들고 멸사복무의 정신으로 인민의 생명과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 이민위천, 위민헌신의 리념이 철저히 구현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는 그토록 아름답고 위대하며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자기의 우월성과 생명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는것이다.

일찌기 유럽의 한 인사가 말했듯이 세계가 혼란과 모순에 허덕이고있는 오늘날 조선이 사람들모두가 평화롭게 살고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로 되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정치리념이 도덕적이며 정의롭고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일관되여있

기때문이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을 위한 사업을 중차대한 국사로 내세우고 인민의 안녕을 위해 천신만고도 달게 여기면서 위대한 헌신의 길을 이어가고있으며 이 땅에 사는 누구나 차별없이 위대한 사랑의 한품에 안아 사회와 집단, 조국의 기둥으로 내세우고있다.

세계에 우리 나라와 같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인민적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하고 엄청난 자연의 대재앙을 당한 인민들에게 삶의 보금자리를 안겨주기 위해 전당적, 전 국가적인 힘을 기울이며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하고있는 나라는 없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인민의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 마음속고충을 남먼저 헤아리고 따뜻이 안아주며 멸사복무의 로정을 줄기차게 이어가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온 나라에 서로 돕고 이끌며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 아름다운 사랑과 정이 활짝 꽃펴나게 하는 자양분으로 되고있다.

믿음과 사랑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렵지만 우리식 사회주의를 자기들의 삶과 행복의 터전으로 소중히 여기고 끝없이 사랑하고있으며 신뢰와 존중, 사랑과 헌신, 협력과 단결을 두터이 하며 력사에 류례없는 시련과 고난을 꿋꿋이 이겨나가고있다.

인민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보고 그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이민위천, 위민헌신의 리념이 활짝 꽃펴나는 우리 나라와 같은 아름다운 인간사랑의 세계, 드넓은 인정의 바다는 이 세상에 찾아볼래야 찾아볼수 없다.

우리 인민은 아직 남들처럼 유족하고 화려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지금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나라 인민도 체험하지 못하였고 체험할수도 없는 무한한 영광과 행복을 가슴뿌듯이 느끼고있다.

우리 인민모두에게 있어서 경애하는 원수님은 운명과 행복, 미래의 전부이며 무궁무진한 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살며 투쟁해오는 나날에 그이만 계시면 비록 지금은 부족한것, 모자라는것이 적지 않고 시련과 난관이 앞길을 가로막아나서지만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반드시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우리는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이 진리는 결코 그 누구의 강요에 의한것도 아니고 순수 론리적사고에 의해서만 나온것도 아니다.

무수한 시련의 나날들을 원수님과 함께 헤쳐오는 과정은 우리 인민이 실생활속에서 그이께 절대적으로 매혹되고 그이의 품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수 없으며 그이의 두리에 뭉치고 또 뭉쳐야만 세상에 부럼없는 생활도, 창창한 미래도 있다는것을 스스럼없이 굳히고굳혀온 과정이다.

세상에는 인민을 위한다는 정치가도 많고 사회의 화목과

단합을 추구하는 령도자도 많다.

하지만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정치를 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처럼 인자하고 후덕한 인품으로 세상천하가 얼어붙은 겨울에도 따뜻한 봄을 느끼게 하는 그런 령도자는 세상에 없다.

그이께서는 인민들과 병사들을 만나 사진을 찍으실 때면 어깨를 겯고 팔을 끼신다. 어린아이들을 만나시면 품에 꼭 껴안고 놓지를 못하신다. 장재도와 무도에 갔다오실 때 허리치는 바다물속에 뛰여들어 바래워주는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을 보며 빨리 들어가라고 흔들리는 작은 목선우에서 오래동안 손을 저어주시는 그이의 눈가는 뜨겁게 젖어있었다. 그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천지를 격동시키였다. 정이 많은 어머니의 참모습을 보았기때문이다.

《로동신문》이나 인터네트에 실린 기록영상물을 통해 자기 령도자의 품을 당의 품, 어머니품으로 노래하며 충성과 의리를 다해가는 공화국인민들의 참모습을 볼 때마다 세상사람들은 생각한다.

《련인들의 사랑조차 무색할 저런 관계를 어떻게 령도자와 백성이 맺을수 있을가.》, 《지구인력과도 같은 저런 혈연적관계는 핵폭탄으로도 가르지 못한다.》

옳은 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화목한 대가정의 어버이로 모시고 천

하제일강국에서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려갈 희망과 신심에 넘쳐 서로 돕고 이끌며 덕과 정이 차넘치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수 없는 불패의 보루이다. 사랑으로 사회주의의 화목한 대가정을 빛내여가는 공화국인민들이야말로 이 세상 가장 긍지높은 만복의 주인공, 행복의 주인공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사랑과 정으로 피여나는 만복의 화원은 더욱 아름다워질것이다.

천하제일강국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향하여 가는 이 나라 인민의 신심은 더욱 굳세여지고 기세는 날로 충천해지고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의 장엄한 진군포성이 강산을 진감하는 시대의 벅찬 숨결과 더불어 이 땅우에는 또 얼마나 많은 문명의 새 화원, 별천지들이 펼쳐질것이며 세상이 부럽도록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려가는 인민의 행복한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또 얼마나 높이 울려퍼지겠는가.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향하여

저 자	고 영 숙
장 정	김 영 일
교 정	조 경 희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11(2022)년 5월 10일
발 행	주체111(2022)년 5월 13일

ㄱ—1536ㄷ

ISBN 978-9946-31-156-2

ISBN 978-9946-31-156-2